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책학석사 학위논문

자립준비청년의 시설 퇴소 후 자립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질적연구
- 정책 수혜자의 입장에서 -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고수안

자립준비청년의 시설 퇴소 후 자립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질적연구

- 정책 수혜자의 입장에서 -

지도교수 최 태 현

이 논문을 정책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03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고 수 안

고수안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06월

위 원 장 _____ 우지숙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최창용 _____ (인)

위 원 _____ 최태현 _____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시설 퇴소 후 자립 과정의 어려움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시설에서의 경험과 제공되는 자립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과 의견을 질문함으로서 당사자의 경험의 근거한 퇴소 후 자립 경험에 대한 의견을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질적 탐구하였다. 양적 좌표가 나타내는 자립의 여러 가지 요건 중 이들이 어느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가장 중요한 환경 요소인 시설에서의 경험과 그곳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들의 성공적인 자립에 기여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Creswell(2018)의 질적 방법론에 기반을 둔 담화 연구를 통하여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의 자립생활경험을 심층적으로 알아보았는데, 시설보호 후 퇴소한 6명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한 결과, 연구 참가자들은 원 가족에 대한 원망, 사람에 대한 그리움, 자립 후 느끼는 공허함, 즉 사람에 대한 상처의 경험을 공통적으로 말해주었다. 원 가족에서 시설로, 시설에서 다시 한번 사회로 홀로 던져진 시설 퇴소자들의 공통적인 경험은 반복된 어른들로부터의 상처가 심화시킨 학습된 무력감이었다. 더불어, 연구 참가자들은 시설에서의 경험과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었는데, 이러한 의견들로 인해 이들의 자립은 시설과 많은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 할 수 있었다. 모든 참가자들은 아동양육시설에서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을 고루 경험하였고, 시설내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비교적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자립을 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의 면담은 모두 녹취되었고, 녹취 자료를 중심 주제 분석법에 따라 8개의 범주와 17개의 의미단위로 분류하였다. 각 영역에 따라 범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4개의 핵심 주제들을 도출하였다. 연구에 참가한 시설 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이 공통적으로 야기하는 핵심 주제들은: (1)지원/정보 격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2)시설 경험에 따른 구직 불균형 (3)심리정서적 불안과 사회적 인식 (4)자립에 대한 불확신 이었다.

시설 퇴소 후 자립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들의 견해를 물은 본 연구는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와 누스바움의 역량접근법 이론적 프레임으로 바라보았다. 현재 정책들은 매슬로우의 1, 2단계, 즉 생리적 욕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들의 여러 니즈 중 매슬로우의 3, 4단계 욕구 충족, 즉 심리적 안정의 니즈로 초점을 옮길 필요성이 야기되었다. 또한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에 근거하여 핵심 역량들 중 당장 시급한 신체건강, 감정, 그리고 관계의 요

인들이 보장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비슷하게 신체건강은 어느정도 보장되고 있지만, 나머지 감정과 관계의 심리정서적 요인들의 강화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결과에 따라 시설에서의 경험은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와 정서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그 중 긍정적인 관계를 쌓고 경험을 기반한 청년들은 비교적 성공적인 자립을 했다는 점에서 매슬로우와 누스바움의 강조하는 결핍욕구들이 충족되어야지만 비로소 정서적으로 안정된 자아실현의 단계에 진입 하여 비로소 성공적인 자립에 이를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다는 논리에 부합하며 자립준비청년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확장시켰다.

원 가족과 자란 아이들에게는 가족 환경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가장 중요한 환경 요소는 보호시설이다. 그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정서, 진로 지원 프로그램들로 공교육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들을, 또 부모의 부재로 생기는 공백을 보강해야 하는데, 연구 참여자들은 지역과 각 보호시설에 따라 너무 많은 지원/정보 격차가 존재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했다. 지역에 따라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의 금액도 현저하게 다르며,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금전적 지원과 시설의 인프라의 격차는 컸다. 이로 인해 경제적 안정으로 이어지는 구직 기회도 다르게 주어졌다. 대부분의 시설에는 경제, 부동산, 안전 등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주말마다 들어야 하는 의무 교육들은 여전히 아동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 개개인의 니즈에 맞춰져 있는 교육이 아니며, 시기적절하지 못한 내용과 교육방식으로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에 그쳤다.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만 18살 퇴소 시점에 모든 정책들과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시설에 있을 때부터 아이들 개개인을 더 살펴보고 시기적절한 개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만큼, 그들의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심리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고찰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시설에서의 프로그램이 중요한 만큼 이들이 시설에서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의 경험도 이들의 자립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대게로 안전한 보금자리, 안정된 의식주를 제공하며 심리정서적 확신을 주고,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의논 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주보호자 역할을 맡게 되는 생활지도원의 잦은 교체로 부모의 부재로 받은 상처나 공허함을 누구와도 공유하기 어려워지는 실상이다. 뿐만 아니라 이 선생님들이 애초에 관리해야 하는 아동의 수도 너무 많기 때문에 시기별로 알맞은 케어를 제공하기엔 거의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진로나 고민상담을 할 수 있는 어른의 존재가 없이 오롯이 홀로 걱정하는 아동들이 많다는 뜻이다. 시설 퇴소 후, 주 양육자의 역할을 대신

하는 사례전담요원의 경우도 비슷하며,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이 닿기 힘들다고 한다. 원 가족으로부터 충족되지 못하는 심리적 안정을 시설에서 채워줘야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시설의 역량으로는 부족했다.

퇴소 후에 느끼는 사회적 낙인과 편견은 이들의 역량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을 준다고 말했다. 이들은 개개인의 특성보다는 항상 배경으로 평가를 받는 기분이 든다고 말한다. 또한, 연구 참가자들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자립을 너무 일찍 강요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자립이라는 건 모두가 평생 풀어야 하는 숙제지만, 이들은 원 가족과 같이 자란 비 자립 준비 청년들에 비해서도 더 이른 “자립”이 강요된다. 자립이 오랫동안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 만 18살이 되면 그 순간으로부터 자립을 강요받는 느낌이 든다고 야기한다.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는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어 일반화에 시키기 어려운 점이다. 자립준비청년은 사회취약계층이라 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지만 선정된 연구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가지는 편향성, 예를 들어 자신감이 높거나 성공적인 사례들이 대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성공적”인 자립, 즉 본인들의 경험들을 잘 승화시키고 이러한 담화들을 건강하게 나눌 준비가 된 청년들만 참여의사를 밝히고, 정작 상처가 아물지 않아 숨어버린 청년들의 생각을 듣기는 어려웠다.

본 연구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시설 퇴소 후 자립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하여 당사자의 경험에 근거해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시설에서의 경험과 프로그램에 대한 견해를 탐색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상향식 (bottom-up) 연구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선 정책제공자 입장에서 추측하는 하향식 (top-down) 방식 보다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끊임없이 묻고 반영해야 하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과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의 렌즈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바라보았을 때, 매슬로우 이론의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 단계에 이르러 자립준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그리고 누스바움이 주장하는 최소한의 핵심 역량들이 잘 보장되어 자립준비청년들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유를 보장받으며 당장의 불평등, 차별과 소외를 줄이고 이들의 역량을 확장 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 그리고 환경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자립, 퇴소, 아동양육시설, 낙인

학 번 : 2021-24922

목 차

제 1 장 서론	5
제 2 장 문헌 및 이론적 검토	7
제 1 절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7
1. 자립준비청년개념 정의 및 현황	7
2. 자립의 의미	8
3. 자립의 관련요인	9
제 2 절 관련 이론	13
1. Maslow's Hierarchy of Needs	13
2. Martha Nussbaum's Capability Approach	15
제 3 절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17
1. 경제적 지원	17
2. 주거 지원	19
2. 시설 자립 지원 프로그램	20
제 4 절 최신 연구의 공백 및 이 연구의 기여	22
제 3 장 연구방법	25
제 1 절 연구방법 및 연구 참여자	25
제 2 절 자료수집 및 분석	26
제 4 장 연구결과	29
제 1 절 지원/정보 격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31
제 2 절 시설 경험에 따른 구직 기회 불균형	33
제 3 절 심리정서적 불안과 사회적 인식	38
제 4 절 자립에 대한 불확신	41
제 5 장 논의 및 결론	45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45
제 2 절 논의	46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48
참고문헌	50

제 1 장 서론

현대 사회의 많은 청소년들은 부모 및 보호자의 도움과 관심 아래 성인으로서 자립하는 과정이 점진적이고 매끄럽게 진행된다. 이들은 어른으로서 사회에 내딛는 첫 발걸음을 위하여 오랫동안 학업, 취업 등에 필요한 다양한 과업들을 주변 어른들의 지도와 지원으로 준비한다. 어른이 되어 자립한다는 것은 하룻밤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경제적, 심리적으로 서서히 독립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른이 된다는 것은 많은 청소년들에게는 막중한 책임감에 두려운 일 이기보단 자유로운 삶을 개척할 기대감에 설레는 일이다 (이태연, 2019). 이러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는 만 18세 생일은 사회에서 규범한 “성인”으로서의 자유, 즉 완화된 가정의 통제 등으로부터 벗어나 어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시작을 의미하며, 만 18세 생일이 되면 부모로부터 당장의 경제적/심리적 독립이 즉각 요구되는 경우는 드물다.

반면, 위탁가정이나 보호시설에서 자란 시설 청년들의 만 18세 생일은 현저하게 다르게 다가온다. 위탁보호 시설 아동은 “부모의 질병, 수감, 실직, 사망 등으로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아동의 양육이 불가능해질 경우,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가정이나 기관을 선정하여 그 기관에서 자라는 아동”으로 정의된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8). 이러한 청소년들은 만 18세에 이르면 나라의 지원과 보호에서 벗어나 홀로 현실세계에 던져져 “자립준비청년”이라는 호칭이 붙는다. 개인의 자립준비 능력과 속도와는 무관하게 자립이 강요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설레는 이 과정은,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다소 두렵고 순탄하지 못한 과정이다. 경제적인 물론, 정신적 의지를 할 수 있는 어른이 많이 없는 이들은 당장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빈곤과 주거 불안정은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난다. (신혜령, 김보육, 2011). 어쩌면 대부분의 원가족의 돌봄 아래 자란 청년들보다 자립준비가 미흡한 이들에게, 더 일찍 자립이 강요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가 규범한 “어른”이 되는 18번째 생일은 이들에게 자유로워진다는 설렘보다는 가정에서 시설로, 시설에서 험난한 세상으로 다시 한 번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상처와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자립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11,000명의 아동이 아동양육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1). 보호아동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비교적 적은 숫자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이라는 이 특정 집단에 대한 인지와 중요성은 간과된다. 특히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란 시설 보호아동들은 가정위탁이나 그룹

홈과는 다른 경험을 한다 (김외선, 2020). 시설에서 퇴소 후 이들에게는 “자립준비청년”이라는 호칭이 주어지는데, 이들은 원가족의 보살핌 없이 위탁시설이라는 독특한 보호환경에서 자란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이란 일반적으로 “경제적, 신체적 및 기타 조건으로 인하여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고, 나아가 국가의 개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혜택을 제공 받을 기회로부터 배제되기 쉬운 계층을 의미한다” (법제처, 2021). 이 특정 집단이 더 각별한 관심과 사회적 투자가 필요한 이유는, 이 청년들의 성공적, 안전한, 지속가능한 자립이 이들을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구성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허민숙, 2018).

최근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여건 조성을 위해 경제, 주거적 지원을 확대하고 개선하였으나 여전히 이들은 자립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형모, 2022). 경제적 지원이나 주거지원 등의 생리적 욕구뿐만 아니라 상처가 많고 사회에 대한 경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이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위한 장기적, 시기적절한 정서적 지원은 필히 요구된다 (김외선, 2020). 당장의 생리적인 욕구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이들이 느끼는 사회적 낙인과 혐오, 그 낙인의 내면화,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배제는 불가피하며 이들의 자율성의 확보와 역량을 충족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이들의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자립은 다방면으로 바라봐야 하는 과정이다.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신경 써야 하지만, 먼저 이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당사자의 경험에 근거하여 퇴소 후 자립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제 2 장 문헌 및 이론적 검토

제 1 절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1. 자립준비청년 개념 정의 및 현황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1항에 의하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4호에 의하면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2020).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르면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그룹홈과 같은 특수 환경에서 양육된 아동, 가정위탁보호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채 지나지 않은 아동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2020).

특히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은 아동복지법 제16조 1항에 의거해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또는 위탁가정에서 만 18세를 맞아 퇴소하거나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국한된다 (보건복지부, 2020). 법3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에는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역 지도자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정원, 2020). 하지만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에게 아동이라는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보호' 대신 '준비'라는 능동적 의미를 사용한 “자립준비청년”으로 이들의 명칭을 2021년부터 변경하였다 (국무조정실, 2021).

보건복지부의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에 의하면,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11,000명의 아동이 아동양육시설에서 양육되고 있고 만 18세가 되어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아동은 매년 약 2,500명이다 (김지연, 윤철경, 2021). 지난 몇 년간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자립여건 조성을 위하여 지원을 확대해 주요 자립지표는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중이지만, 여전히 일반 청년 대비 자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무조정실, 2021). 예전에 비하면 이 특정 집단의 주요 자립 지표들은 향상되었지만, 비자립준비청년들과 비교하면 실제 자립지표 격차는 아직 매우 큰 상황이며, 코로나 19, 청년 취업난 등으로 자립여건은 더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국무조정실, 2021). 자립준비청년의 월 평균 임금은 182만원인 데에 반해 일반 청년의 월 평균 임금은 233만원이었고, 대학 진학률 역시 62.8%와 70.4%였다 (국무조정실,

2021). 18세에서 24세까지의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이들은 질병 미치료 (18.9%), 자살 생각 (8.4%), 자살시도 경험 (2.1%), 경제적 스트레스 (44.8%), 진로 스트레스 (20.9%) 등을 경험하였다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2017). 이러한 양적 데이터가 증명하듯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는 경제, 주거적 현금성 지원이 확대되었다고 해서 자립준비청년들의 어려움이 충분히 해소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1> 연도별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 및 퇴소아동 수 현황

(단위:명)

연도	보호아동 수				보호종료 및 퇴소아동 수			
	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 가정	합계	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 가정	합계
2017	12,789	11,983	2,811	27,583	1,034	1,406	153	2,593
2018	11,100	11,141	2,872	25,113	1,065	1,349	192	2,602
2019	10,585	10,334	2,645	23,546	992	1,423	172	2,587
2020	11,394	9,923	3,047	24,364	827	1,373	168	2,368

출처: 자립 지원 통합 관리 시스템. 보건복지부 (2021a). 보건복지백서, p.353.
재인용.

2. 자립의 의미

자립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얽매이지 않고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하여 정당한 지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김희정, 2002). 더불어, 한 사회 안에서 그 사회의 일원으로 다른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과 지역 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홀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독립을 의미하기도 한다 (송이은, 2019). Kim (2013)을 포함한 많은 연구들은 자립의 의미를 탐색하였는데 이 연구들은 모두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유영림 외, 2015). 여기서도 강조되는 부분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즉, 자립이란 “남에게 의지하거나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선다”(한국어사전) 고 정의되는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안정적인 경제적 능력이 필수적이기 때

문이다(최경옥 외, 2018). 더욱이, 경제적 자립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성취감을 주는 중요한 과업이기 때문에 자립의 필수 조건이다 (이정애 외, 2017). 자립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심리적인 자립은 다른 사회 구성원과 관계를 맺을 수는 있지만 의존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송이은, 2019). 즉, 남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도 의존하지 않으며 스스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성공적인 자립이라고 부를 수 있다. 자립은 '연속적인 과정'이며, 자립의 경험은 '개별적'이기 때문에 가정 외 환경에서 보호되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다방면의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시설에서의 상황은 원가족에서 자라 자립하는 이들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정정호 외, 2021).

3. 자립의 관련요인

1) 경제적/주거적 요인

자립을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하여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경제적/주거적 자립은 필수 요인이다. “캥거루족”은 20세기 후반 이후 서구 산업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청년층을 의미한다 (김미연, 2010; 심재휘 외, 2018). 캥거루족은 학업을 끝마치고도 다양한 이유로 부모와 같이 사는데, 일반적인 이유는 취업난의 심화로 취업실패나 높아진 주거비와 생활비로 독립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심재휘 외, 2018).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우, 캥거루족이 될 선택을 할 수 없다. 이들은 비자립준비청년들과 다르게 퇴소와 함께 즉각적인 경제적인 자립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원가족의 도움 없이 퇴소와 동시에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홀로서기를 시작해야한다. 정부의 자립지원금은 생활의 보조의 개념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바로 구하지 않으면 퇴소 후 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자립준비청년을 조사한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2020)에 따르면, 대학 미진학 자립준비청년들의 67.8%는 경제적인 사유 때문이었다 (이상정, 2020). 즉,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돈을 벌어야하는 청년들이 절반 이상이라는 것이다. 대학 진학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취업 기회나 네트워킹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앞으로 갖고 싶은 진로 방향에 대해 더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김기현, 이윤주, 유설희, 2017). 원가족과 함께 지내며 대학생활을 하는 많은 비자립준비청년들과 달리 자립준비청년들은 당장의 월세, 생활비, 통신비, 식비, 교통비 등 모든 경제적인 부분을 홀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자립의 관련요인 중 경제적/주거적 자립이 어찌면 성공적인 자립의 첫 순서라고 볼 수 있는 이유도 원가족과 당장 함께 지내며 경제적, 주거적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경우, 가정으로부터 보장되는 심리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망을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구직 요인

일자리는 “경제적 보상에 대한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활동들을 뜻한다” (왕정하, 2018).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자리의 질은 크게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이 영향을 미치는데, 금전적 보상은 임금, 각종보험, 퇴직금과 같은 현금성 혜택을 포함하고, 비금전적 보상은 근무 환경, 사회적 보답,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내적 만족 등을 포함한다 (Kalleberge, 2011).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장은 금전적과 비금전적 보상이 둘 다 만족되며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일자리이다 (배성숙 외, 2017). 일자리에도 근무환경, 금전적 보상 등 고려해야할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구직 지역에 따라, 개개인의 교육수준에 따라, 또는 가치관에 따라 나뉠 수 있다 (왕정하, 2018).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우 퇴소와 동시 스스로 생활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자립준비청년들보다 더 빠른 구직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조민좌&전효정, 2012). 일자리를 결정할 때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며,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는 이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 대학 진학이나 본인의 꿈을 포기하며 먼저 구직활동을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구체적인 진로 설정 및 점진적인 준비가 특별히 더 필요하다 (조민좌&전효정, 2012).

경제적 자립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가장 주목해야 할 자립 요소 중 하나이고,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취업 정책은 단순한 취업 유무를 넘어서 “괜찮은 일자리” 또는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송이은, 2019). 더 나아가,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 즉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 어떤 관심사가 있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직업을 고를 수 있는 능력 역시 키워주어야 한다. 비자립준비청년조차도 만 18세에 본인의 진로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수의 경우, 이들의 진로나 삶의 방향성은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들과 같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다. 만약 불확실한 경우, 대학에 진학하여 여러 가지 수업을 들으며 본인의 성향과 관심사를 파악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자립준비청년들의 이러한 능력은 퇴소 전에 가장 중요한 환경요소인 시설에서 선생님들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꾸준하고 오랫동안

안 발전시켜야 한다. 이 집단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고용조건이 필수인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 (시설 안에서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공교육 시스템), 개인역량강화 지원, 취업시장의 지원 등 다방면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 2> 개인단위 '좋은 일자리' 측정지표

대분류	세부지표
1. 직무/직업특성	자율성/권한/위세
2. 고용안정	정규고용/고용안정성
3. 발전 가능성	숙련향상 가능성/승진 가능성
4. 보상	급여/부가급여
5. 근무조건	근무시간/작업환경
6. 관계	인간관계

출처: 송진구, 2016, 근로자 관점에서의 좋은 일자리가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공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p.118

3) 심리 정서적 요인

심리정서적 자립은 다른 사회 구성원과 관계를 맺을 수는 있지만 의존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경제/주거적으로 원가족과 독립했다고 해서 심리정서적으로 자립했다고 볼 수 없다. 심리정서적 자립이란 도움을 줄 가족이나 사회 구성원이 있어도 의존하지 않고 홀로서기가 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청년들의 건강하고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심리정서적인 자립은 필수 조건이다 (김예성, 이경상, 2015).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립준비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중 경제적 어려움도 크지만 심리적 어려움도 매우 크며 이러한 심리적 자립은 퇴소와 동시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태연 외, 2019).

자립준비청년들은 기본적으로 원가족의 지지망이 부재할 가능성이 크고 사회에 대한 원망 및 배신감으로 다른 아동들에 비해 심리 정서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모, 2022). 가족의 보살핌 아래서 자란 비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대부분은 가정을 안정된 공간으로 지각하며, 이것은 건강한 자기개념과 심리상태로 이끈다 (지명자, 2017).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가정 외 환경에서 생활하게 된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우, 불안정한 환경, 잦은 담당 선생님/주보호자의 교체 등

으로 생긴 상처로 인해 원가족의 보호아래 성장한 다른 청년들에 비해 뒤처지기 쉽다 (이태연 외, 2019). 일반 가정 청년들도 그렇듯, 자립준비청년 역시 심리 정서적 상태가 건강할수록 더 의욕적이고 자신의 장래와 진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 (이정애 외, 2018). 원가족과 미해결된 심리적 갈등이나 혼란, 가정 외 환경에서 자란 불안정감, 외로움 등은 더 큰 불안과 어려움을 초래한다 (김미연, 2016). 오랜 기간 기댈 수 있는 원가족이나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의 공백으로 대체로 심리정서적으로 불안한 이들은, 열여덟 어른이 되면 시설에서 맺은 크고 작은 관계들로부터 또 다시 한번 자립이 강요되어 두려운 자립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김지선 외, 2018).

4) 사회적지지 (Social Support) 요인

사회적 지지의 개념에는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지지가 모두 포함된다 (House & Khan, 1985). 사회적 관계는 보호 등의 지지요소로 긍정적 기능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구성원들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나 요구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갈등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윤정, 2017). 이처럼 사회적 관계는 사회생활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한 커뮤니티에서 오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이 어려운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직장, 원 가족과 지인들의 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지는 자연스레 주어지기 보다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쌓아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김주연,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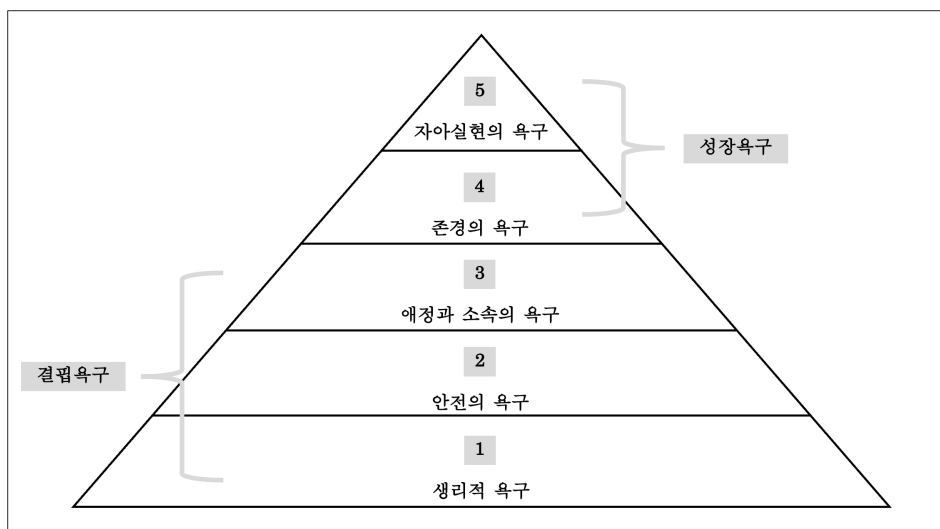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보살핌을 받고 있고, 그 사회에서 가치 있는 구성원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믿게 하는 긍정적 자원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넓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박영준, 2012). 따라서 아동양육 시설의 청소년의 경우, 원가족의 적극적인 지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일반가정의 청소년보다 사회적 지지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수정 외, 2013). 또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 (perceived social support) 도 매우 중요하다 (김주연, 2017). 타인에게 지지를 받더라도, 스스로 그것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우 사회적 낙인이나 배제와 같은 사회에 대한 부정적 편견 때문에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김셋별, 2016). 사회 구성원들이 이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도록 바뀌는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되어야 하지만, 이들 또한 스스로의 상처와 경험을 건강하게 승화시켜서 자신의 역량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쌓고 회복해야 비로소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관련 이론

1. Maslow's Hierarchy of Needs

이 연구는 매슬로우 (Maslow)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 (Maslow's hierarchy of needs) 의 렌즈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바라본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다섯 가지의 욕구를 추구하는데, 이 다섯 가지의 욕구는 우선순위별로 단계가 나뉜다 (Maslow, 1943). 1단계(physiological needs)는 숨쉬고, 먹고, 자는 것과 같은 가장 기초적인 생리적 욕구, 2단계(safety and security)는 안전한 집이나 모아둔 돈과 같은 신체적이나 경제적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싶은 욕구이고, 3단계(love and belonging)는 어느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열망,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가족을 이루고 싶은 애정과 소속의 욕구, 4단계(self-esteem)는 명예욕과 권력욕과 같은 누군가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이다 (Maslow, 1943). 마지막 5단계 (self-actualization)는 1부터 4까지 모든 욕구들이 만족되었을 때 비로소 닿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욕구인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자기발전을 이루는 자아실현의 욕구이다 (Maslow, 1943).

<모형 1> Maslow's Hierarchy of Needs



(Maslow, "Hierarchy of Needs," 1943)

매슬로우는 이와 같이 하위 4개의 단계들이 모두 이루어져야 비로소 자신

을 알아가고 인생에 의미를 찾는 자아실현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 사회취약계층인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결핍욕구들이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Fergus, 2019). 첫 두 단계는 매슬로우의 이론 중 가장 기본적인 욕구 (basic need)로 분류되는데,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기본적인 음식과 물 같은 식량 자원의 지원과 안전한 주거 환경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이해가 필요하다 (Fergus, 2019).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 16조에 의거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크게 자립 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이들이 사회 일원으로서의 자립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2020).

매슬로우의 이론은 교육이나 경영 쪽에서 직원 동기부여에 관한 연구의 프레임워크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Williams, 2020). 이 이론을 장애 아동 (Lyngnegard, 2013) 이나 빈곤 아동 (Noltemeyer, 2012) 등 사회 취약 계층을 연구하는 렌즈로 적용 한 소수의 외국 연구들은 존재하지만 (Fergus, 2019), 이러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알아보는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 이론의 렌즈로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 과정을 바라봤을 때, 기존 문헌들은 1과 2단계의 생리적 욕구해소의 중요성에 치우쳐 있다 (신혜령&김보옥, 2011; Jung&Kim, 2019). 하지만 이들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알고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나머지 3과 4단계, 심리적인 욕구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Steenbakkers, 2018). 그리고 현재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다양한 욕구들의 충족을 단계별로 나눌 것이 아니라, 동시 다발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고 본다.

자립준비청년들의 가장 큰 커뮤니티가 조성 되어있는 아름다운 재단을 통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금전적 지원은 임시적인 방편일 뿐이라고 한다 (아름다운 재단, 2021). ‘열여덟 어른’ 캠페인의 아동들은 아무리 탄탄한 경제 보조와 일자리 기회가 있어도 상처가 많은 본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심리정서적 자원의 결핍에 초점이 맞추어 지기를 바라고, 게다가 브라더스키퍼의 김성민 대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해도 퇴소생들은 대부분 사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 크고 작은 이유들로 오래 버티지 못하고 퇴사했음을 밝혔다 (목요대화, 2021). 따라서 시설과 관련된 요인들은 자립 준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만큼 (김외선, 2020), 생리적, 경제적인 욕구들과 더불어 이러한 심리정서적 욕구들을 만족시켜 자립준비청년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하여 시설에서의 경험과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수혜자의 직접적인 견해를 알아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2. Martha Nussbaum's Capability Approach

이 연구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과 더불어 마사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의 역량접근법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마주하는 문제들과 한계를 고찰하였다. 역량접근법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의 목표인 기존의 세계 개발경제학의 주류 이론을 비판하는 접근법이다. 누스바움은 부(wealth)나 안녕(well-being)을 측정하기 위한 기존의 Gross Domestic Product (GDP) 접근법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며 숫자로 나타내지 못하는 측면, 즉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과 될 수 있는 것'을 묻는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접근법은 GDP와 같은 수치가 증가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국민의 삶의 질이나 행복, 안녕이 향상되는 것은 아님을 주장하며, 사회가 사람들의 기본적 자유나 정의를 보장해주는지 알고 비교할 필요성을 말한다. 역량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 1) '좋은'사회란 단순히 경제적으로 '좋은'사회가 아닌, 개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하며 보장해주는 사회라고 말한다.
- 2) 이러한 개개인의 '역량'을 수치 척도로 나타낼 경우 생길 수 있는 한계와 왜곡 가능성을 야기하며,
- 3) 공공정책의 중요한 의무는 사회의 불평등, 차별과 소외를 줄이며 개인의 삶의 질과 역량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량 접근법에서 누스바움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점은 실질적인 자유이다. 즉, 우리 사회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가?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역량접근법의 핵심이다 (Nussbaum, 2011).

누스바움은 정부가 보장해야 하는 10대 핵심 역량으로 다음을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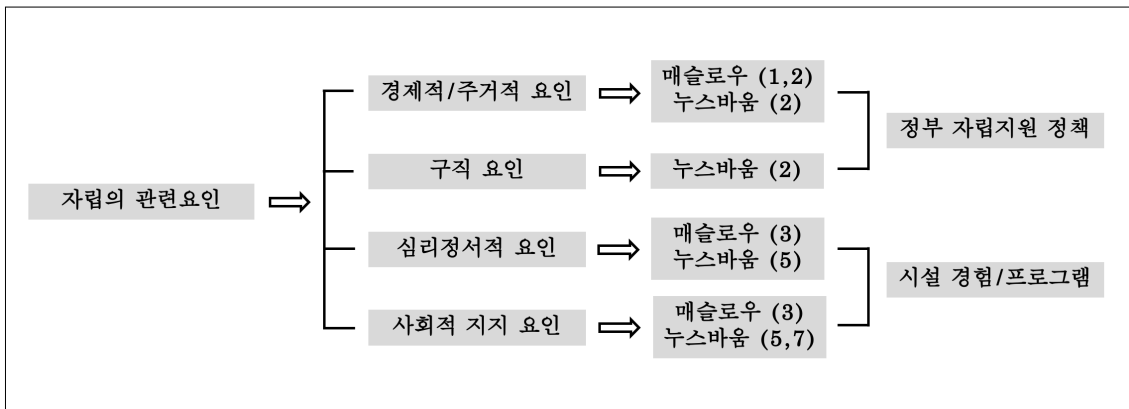
- 1) 생명 (life): 국가는 국민들이 평균 수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 2) 신체 건강 (bodily health): 국가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주거공간이나 음식 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 3) 신체 보전 (bodily integrity):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해주고, 성폭행이나 폭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한다.
- 4) 감각, 상상, 사고 (sense, imagination, and thought): 적절한 교육으로 역량을 확보하고 정치의 표현이나 종교의 자유를 보호받으며 상상할 수 있는 훈련을 보

장해야한다.

- 5) 감정 (emotion): 공포나 불안으로 감정을 방해 받지 않고 주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피며 일반적으로 슬픔, 사랑, 행복, 분노 등을 느끼도록 해주어야 한다.
- 6) 실천이성 (practical reason): '선'에 대한 개념을 길러주고 삶에 대한 고찰을 가능케 해야 한다.
- 7) 관계 (affiliation):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며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며 인종, 성적 지향, 배경, 계급, 종교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없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8) 인간 이외의 종 (other species): 인간 이외의 동 식물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어우러져서 살 수 있어야 한다.
- 9) 놀이 (play):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 10) 환경 통제 (control over one's environment): 정치적 선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재산이나 구직 기회도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이 하위 4단계의 욕구들이 충족 되어야만 개인이 자신을 알아가고 삶의 의미를 찾는 자아실현의 단계에 도달 할 수 있다고 말하듯,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에서도 개개인이 삶의 질과 역량을 확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상적인 사회에선 이와 같은 10대 요건들이 보장되겠지만, 그것은 매우 드물고 어려운 일이다 (Nussbaum, 2011). 자립준비청년들에게도 누스바움이 강조하는 핵심 역량들이 모두 충족되면 이들의 역량과 자율성을 확보 해 주겠지만, 그것은 현실과 큰 괴리가 있다.

<모형 2> 자립의 관련요인 연구모형



자립준비청년들은 특히나 사회로 인한 혐오, 배제, 낙인 등이 잘 들어나는 집

단인데 본 연구에서는 적어도 이들에게 최소한 당장 시급한 신체건강(2), 감정(5), 그리고 관계(7)의 요인들이 보장되고 있는지, 정부와 사회가 이들을 향한 불평등, 차별과 소외를 줄이며 이들의 역량 확장에 앞서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매슬로우의 하위 4단계들이 잘 충족되고 있으며, 또한 누스바움의 최소한의 핵심 역량들 (신체 건강, 감정, 관계)이 잘 보존되어 자립준비청년들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유를 보장받고 성공적인 자립으로 이어지는 발판을 마련하는지 알아 보아야 한다. 모형2와 같이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여러 가지의 니즈가 있는데, 매슬로우와 누스바움의 이론적 렌즈로 그 중에서 생리적 욕구인 경제적, 주거 불안정과 같은 욕구는 정부 자립 지원 정책들로, 나머지 구직 어려움, 심리정서적 불안, 부정적 사회 인식 등은 자립준비청년의 가장 중요한 환경요소인 시설 안에서의 관리와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경험에 근거해서 이러한 니즈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소되고 있는지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제 3 절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우리나라 정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다양한 지원 정책 예산을 편성하여 실행하고 있고, 이러한 지원 정책들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주거적 지원이다. 자립준비청년과 비자립준비청년 모두 자립의 첫걸음이 경제적 독립이기 때문에 정부의 충분한 관심과 지원은 몹시 중요하다.

1. 경제적 지원

1)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 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다 (김형모, 2022). 디딤씨앗통장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유일한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2021). 디딤씨앗통장의 지원대상에는 보호대상아동이 포함된다. 기본 매칭 적립은 아동, 혹은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 (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국가가 매칭을 해주고 그 이상 저금은 가능하나, 추가 적립금에 대해 국가의 매칭은 없다. 만 18세에 만기가 되며 18세부터 24세까지는 학자금, 기술,자격증 준비, 취업훈련, 창업, 주거마련 등의 용

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만 24세 이후엔 용도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2021).

2) 자립정착금

<표3> 2022년 자립정착금 지급 기준

(단위: 만원)

시/도	지원금
서울특별시	1,000
부산광역시	700
대구광역시	800
인천광역시	800
광주광역시	1,000
대전광역시	800
울산광역시	500
세종특별자치시	500
경기도	1,500
강원도	500
충청북도	500
충청남도	500
전라북도	500
전라남도	1,000
경상북도	500
경상남도	500
제주특별자치도	500

*서울: 22년부터 2년에 걸쳐 500만원씩 분할 지급

*경기: 22년부터 2년에 걸쳐 1,000만원, 500만원 분할 지급

*부산: (일반) 700만원, (장애) 800만원

*충북: 청주, 괴산 800만원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22)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정착금 지급대상이다. 단, 특수 경우로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이나 만 17세의 퇴소 등으로 인한 사유는 지자체 판단 하에 지급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2021). 표3과 같이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 일회성 지급이 원칙이며 지급대상 모두에게 1인당 최소 500만 원 이상 되도록 지급한다(보건복지부, 2021). 최근 정부에서는 자립정착금을 1,000만 원 정도로 권고하고 있기에 지원 금액의 인상이 예상된다. 자립정착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자립준비청년이 생활했던 시설의 지역에 기준하여 지급한다. 자립정착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및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 및 심사를 받아야 하며 자립정착금 교육에 참여해야한다 (보건복지부, 2022).

3) 자립 수당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에게 보호 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 2021). 2021년 8월부터 자립수당 지원 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중,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보호 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와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이다 (보건복지부, 2021). 2023년부터는 지원이 늘어나, 매월 40만원 현금성 지급이 원칙이다 (보건복지부, 2023).

2. 주거 지원

1)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2021년 1월 기준으로 10개의 시/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가 참여했다 (보건복지부, 2021). 지원대상은 시설 보호 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LH 매입/전세 임대주택 또는 일반주택 월세에 거주 중인 자와 재계약이나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이다 (김형모, 2022). 매월 15-20만원 상당 임대료 실비 지원과 1인당 50만원의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물품지원, 그리고 20만원 사례관리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2021).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서비스는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자 청년 중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의 아동에게 임대보증금 100만원과 시중 시세의 40%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온라인 청년센터, 2023).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2회 가능하고 무주택 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가 가능한 지원 서비스이다 (온라인 청년센터, 2023).

3. 시설 자립 지원 프로그램

원가족의 보호와 관심 아래 자란 아이들에게는 가족 환경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가장 중요한 환경 요소는 보호시설이다 (정선욱 외, 2018). 시설에서의 정서, 진로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와 그 안에서 맺은 관계는 퇴소 후에도 많은 지원의 원천이 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다 (김소영&이신혜, 2020). 아동양육시설에서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선생님의 애착이 높을수록, 프로그램이 많을수록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인 자립은 높았고, (김예성&이경상, 2015) 자립과 사회적 지지를 알아보는 다른 연구에서는 시설 지지가 가장 중요한 자립의 영향요인으로, 연구에서 측정된 6개의 자립 영역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신혜령 외, 2003). 또한 진로지도와 개별 소규모 프로그램들은 자립준비청년의 긍정적 심리 변화나 대인관계향상에 기여했다 (박선정 2009).

그러나 그동안의 자립서비스에 대한 문헌적 고찰은 서비스 제공자의 시선에서 하향식(top-down)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그것을 경험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입장에서 검토된 바는 드물다 (박혜지&이정화, 2020). 자립 당사자인 아동들의 의견과 주체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재로선 프로그램 이수 여부만 확인하고 개인의 단계나 성과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구축 되어있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즉,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고, 참여율 등에 대한 데이터만 구축되어 있고, 그 프로그램들의 참가자의 평가와 같은 데이터는 수집되고 있지 않다. 이들의 니즈에 맞춰 자립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당사자들은 지원 서비스의 경험에 대해 어떤생각을 갖고있는지, 어떤 측면이 수정·보완되어야 하는지 논의와 고찰이 필요하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대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도 대부분 시설 안에서의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을 분석 한 것이나 (황수연, 2018), 아동들의 퇴소 후 심리적 변화 경험에 대한 연구 (윤명숙·박신애, 2014; 정혜옥·손병덕, 2018)로 제한되었다. 이상정 외(2019)은 자립 준비 프로그램의 검토와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아동들이 서비스 경험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프로그램 별 경험 여부가 자립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의미가 있었지만, 프로그램들은 계속 달라지고 있고, 프로그램의 경험 여부는 자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집단을 대변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상정 외, 2019).

외국에서도 비슷하게 보육원 아이들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 된 반면, 이 특수한 집단에 대한 연구들은 비교적 아직 부족하다. 외국 선행연구 중 일부는 퇴소 아동 당사자들의 관점을 반영한 질적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Jones, 2011; Cunningham&Diversi, 2012), 이 연구들도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호 시설에서 퇴소 후의 생활에 관한 연구들이었다 (김외선, 2020). 외국 문헌들 역시 자립준비청년을 서비스 당사자로 인식하여 그들이 받은 서비스에 대한 평가나 경험에 대한 논의는 제한된다 (박은미, 2017). Katz&Courtney (2015)는 자립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니즈 충족에 관한 연구를 하였지만, 한국처럼 정부가 시설 프로그램에 개입되어 있기보다 비영리의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에, 비교에도 한계가 있다 (이슬기&양성, 2019).

일본에서는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법적 기반이 1995년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 수십 년의 수정과 검토를 거쳐서 2016년 아동복지법 개정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권리로 보장하는 법문을 명확히 하며 이들의 자립지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발전시켰다 (이상정, 2021). 자립준비청년들의 성공적인 자립에 필요한 경제적, 주거적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고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상정, 2021). 특히 일본에서는 2016년의 법 개정 이후, 이들을 위한 자립 지원 코디네이터를 배치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개개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호시설에서의 사회로의 진입이 비교적 원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상정, 2021). 이러한 자립 지원 코디네이터는 전문 자격과 현장 경력이 필요한데, 이들은 아동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개개인에 맞춘 지원계획과 목표를 세우며 생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시기적절한 개입을 하고 유동적으로 관련 기관들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정하여 지원한다 (이봉주 외, 2017).

미국의 경우, 주정부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지만 각 주의 재정이나 문화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주정부의 관리하에 주마다 자립 프로그램 코디네이터가 직접적인 서비스를 전달한다 (이상정, 2021). 미국은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주마다 경제, 정치적 상황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생긴 공백을 채우는데 비영리나 민간단체의 개입이 크다 (권지성, 2019).

영국은 비로소 2000년에 이르러서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개념이 구체화되

어 이들에 대한 책임 및 보호를 지방정부에게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이후 점진적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은 더 확장되어 2008년에는 지원 대상 연령을 만 18세에서 21세로 늘였고, 교육 또는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 아동들에게는 이러한 자립지원이 만 25세까지 적용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하지만 이러한 지원정책들이 2017년에 다시 축소되어 우리나라의 연장보호제도와 유사하게 보호기간을 만 21세까지 연장할 수 있고, 만 25세 이하의 자립준비청년들은 개별 조언가를 통해서 자립 지원을 받고 있다 (이상정, 2021).

독일의 경우 특이하게 아동을 13세까지, 청소년을 14~18세까지로 규정하지만 자립준비청년들은 아동청소년지원법상 최대 27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독일의 자립 지원의 주된 포커스는 사회 진입 단계에서의 평등한 기회와 지속 가능한 사회적 참여이기 때문에 교육, 직업, 주거, 지역사회 구축을 중요시 하는 정책들을 강화시키고 있다 (BMFSFJ, 2017, p. 68). 독일의 아동 청소년 지원 법에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자립 서비스는 치료 서비스, 교육상담, 집단사업, 사회복지 또는 돌봄 지원, 전일제 도움, 시설보호, 집중적인 사회 복지적 개인 돌봄, 사법적 지원, 그리고 청소년사회사업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특히 독일은 정부의 지원과 잠재적 아동지원 단계 사이에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갖추었는데, 이는 아동의 잠재적 위험을 인지하였을 경우, 사전 대처 및 해당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기적절하고 빠른 개입으로 통해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상정, 2021).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모두 한국과 비교해서는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집단에 대한 고찰이 더 많고 오래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와 문화, 복지, 교육 시스템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 선진 국가들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어떻게 우리나라에 맞게 접목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제 4 절 최신 연구의 공백 및 이 연구의 기여

현재 존재하는 가정 위탁 관련 연구들은 시설 아동들의 복지, 즉 더 안전하고 나은 성장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고찰이나 위탁 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것이 대다수이다 (황수연, 2018). 우리나라의 보호아동에 관한 관심은 나라가 보호하는 동안 최대한 잘 돌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고 보호가 종료 된 시점으

로부터는 관심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마저도 단순히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리, 운영의 차원의 연구가 많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아직 소수인 것은 분명하다. 이 집단에게 ‘보호종료아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진지도 5년이 채 안되었고,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이름으로 호칭이 변경된 것도 2021, 불과 2년도 안되었다. 자립준비청년의 기존 연구들은 이들의 생리적 욕구, 즉 경제적, 주거 지원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다 (김형모, 2022). 하지만 이러한 생리적 욕구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적 지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가장 중요한 환경 요소는 보호시설인데, 시설에 관한 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연구는 제한적이다 (박혜지, 2020).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 안에서의 경험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립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 당사자의 입장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는 많은 니즈가 있다. 당장 숫자로 보이는 경제와 주거지원도 중요하지만, 보호시설의 경험과 프로그램을 통한 심리정서적 지원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박혜지, 2020). 자립준비청년의 입장으로 Maslow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을 사회 취약계층을 연구하는 렌즈로 적용 한 외국 연구들(Lyngnegard, 2013; Noltemeyer, 2012) 은 존재하지만 극히 드물다 (Fergeus, 2019). 더욱이 이러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자립준비청년을 알아보는 연구는 더 제한적이다. 이 이론의 렌즈로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을 바라봤을 때, 기존 문헌들은 1과 2단계의 생리적 욕구에 치우쳐 있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재 지원정책들도 경제적, 주거 등 생리적 욕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신혜령&김보옥, 2011; Jung&Kim, 2019). 하지만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제 역량을 다 발휘하려면 나머지 3과 4단계, 심리정서적인 욕구들 또한 충족되어야 한다 (Steenbakkers, 2018). 이들의 특성상 피해의식이나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아동들이 많은데 (목요대화, 2021), 시설과 관련한 요인들은 자립 준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큰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김외선, 2020), 이러한 기본적인 생리적 니즈뿐만 아니라 심리욕구들을 만족시켜야한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하여 시설에서의 경험과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수혜자의 직접적인 견해를 알아봐야 하지만 이러한 탐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정선욱 외, 2018).

2021년 9월,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아동의 의사에 따라 18세에서 24세까지 연장하고 자립수당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지급하였다 (김연정&정선영, 2022). 올해부터 자립수당은 월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반갑지만 기존의 생리적 욕구와 현금성 지원의 확대에 또 다시 초점이 맞추어졌고, 경제적 지원이 연장되었다고 청년들의 자립 과정이 더 수

월해졌는지는 의문이다 (김연정&정선영, 2022).

이 연구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시설 퇴소 후 자립 과정의 어려움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시설에서의 경험과 제공되는 자립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과 의견을 질문함으로서 당사자의 경험의 근거한 퇴소 후 자립 경험에 대한 의견을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질적 탐구하였다. 양적 좌표가 나타내는 자립의 여러 가지 요건 중 이들이 어느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가장 중요한 환경 요소인 시설에서의 경험과 그곳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들의 성공적인 자립에 기여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Creswell(2018)의 질적 방법론에 기반을 둔 담화 연구를 통하여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의 자립생활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소외된 이들의 담화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립준비과정이나 자립 후에 겪는 경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참고 자료를 통해 시설에 자립지원 관련 프로그램에 관하여 알아보았고, 현재 어떠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들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였다. 당사자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시설 퇴소 후 자립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6명을 참여자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참여자들의 시설에서의 개인적인 경험과 그곳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탐색하였다. 또한 그러한 경험들이 자립 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지 알아보았다. 과연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리적 지원 (경제적, 주거적) 지원의 지속적인 확대가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인 자립을 도모하는지, 그리고 이들은 자립 과정 중 어느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당사자의 경험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방법 및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 개별 경험의 이해를 통한 인간 경험의 의미를 알아보는 담화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의 시설 퇴소 후 자립 과정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알아보려고 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자립 실태와 수치 같은 객관적인 양상들을 알아보는 것보다 이 이슈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시설에서의 생활이나 자립 준비 경험이 그들의 자립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주관적 경험에 기반을 둔 심층적인 내면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미 이들의 자립을 나타내는 양적 자료들은 존재하고, 주거, 경제 등의 양적 지표는 이 집단의 내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객관적 양상을 알아보는 자립전담요원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는 청년들도 있고, 경제적, 주거적 지표가 말해주지 못하는 개개인의 서사가 분명 존재한다. 당사자의 직접적인 견해를 묻는 질적 탐구가 이루어지고 이들의 니즈나 어려움을 파악해야 그에 따른 의미 있는 양적 탐구도 가능해진다.

본 연구는 목적 표집을 이용하여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연구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지만, 자립준비청년과 같은 사회 취약 계층을 연구할 때, 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자립준비청년의 커뮤니티가 가장 크게 구축되어있는 비영리단체 ‘아름다운 재단’에 연락하여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힌 자립준비 청년을 소개받았다. 하지만 목적 표집만 이용 할 경우 성공적으로 자립을 하였거나 비교적 긍정적인 경험을 한 표본만 선정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노우볼링 표집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목적 표집을 이용해 모은 연구 참여자에게 다른 경험을 한 청년들을 소개받았다. 또한 약 1,000명으로 구성되어있는 “자립준비청년 정보 공유방”에 들어가 이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투명하게 소개하고 자발적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시설 퇴소 후 자립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청년 6명 (A,B,C, D,E,F)으로 구성되었고, 그 중에는 아동양육시설 퇴소 당사자이자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종사자도 있었고, 당사자 활동가도 포함되었다.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투명하게 밝히고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와 충분한 라포 형성을 한 후, 연구 참여자가 심리적으로 편안한 장소에서 면담을 요청 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 한 참여자들의

기본 정보는 표 4와 같다.

<표4> 연구 참여자

참가자	성별	나이	직업	시설 프로그램 참여 유/무	양육시설 보호기간
A	남	27	회사원	유	14년
B	여	24	학생	유	12년
C	남	26	지원사업 종사자	유	16년
D	남	29	당사자 활동가	유	15년
E	남	20	취업준비생	유	18년
F	남	25	프리랜서	유	10년

제 2 절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아동 양육 시설 퇴소생 6명을 참여자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면담시간은 참여자마다 상이했지만, 각 약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 되었다.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연구 책임자에 대한 충분한 소개를 한 후, 연구 프로포절을 읽게 하고, 연구 동의서에 서명을 요청했다. 면담 시작 전, 연구 참여자들과 일상 얘기를 하며 rapport 형성을 위해 노력하여 최대한 편안한 인터뷰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1차 면담과 2차 면담을 한자리에서 진행했는데, 1차 면담에는 개인의 시설에 입소하게 된 배경이나 적응 경험과 그때의 감정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유도하였고, 2차 면담에서는 현재 정부가제공하고 있는 자립 지원 정책에 대한 생각과 시설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듣기 위해 사전 준비된 질문들을 위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개념이나 가치관 등을 도출하여 자립 경험과 관련된 의미 있는 중심 주제와 맥락을 찾기 위해 중심 주제 분석법에 따라 분석 하였다. 모든 면담 과정을 녹음한 후 녹취록을 작성하고, 녹취자료 분석을 연구 참가자들에게 보여주고 자료가 정확한 지 확인을 부탁해 시설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과 자립 경험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1,2차 면담을 비교하고, 연구 참여자들에게 도출해낸 개념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며 유사한 개념들을

묶어 범주화하고 핵심이 되는 주제와 의미를 탐색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와 다른 엄격성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잣대는 연구결과와 해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Lincoln & Guba (1986)가 제시한 질적 연구의 엄격성 4가지 기준: (1) 사실에 대한 확신 (credibility), (2) 적용 가능성 (transferability), (3) 일관성 (dependability), 그리고 (4) 중립성 (confirmability)에 준거하여 서술하였다. 연구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한 선행연구를 검토하며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연구가 실제 집단과 현상을 최대한 대변할 수 있도록 심층 면담 이외에도 자료의 포화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질문들을 하였다. 더불어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참여자들에 대한 고정된 편견을 배제하려 노력하였다.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연구 동의서에 중요한 내용을 모두 기재하고, 모든 과정은 자발적인 참여에 이루어지기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음을 알렸으며,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끼는 곳에서 인터뷰를 하였다. 더불어, 연구 결과에도 확실한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인터뷰 내용을 인용 시 표 4에 배정한 알파벳을 표기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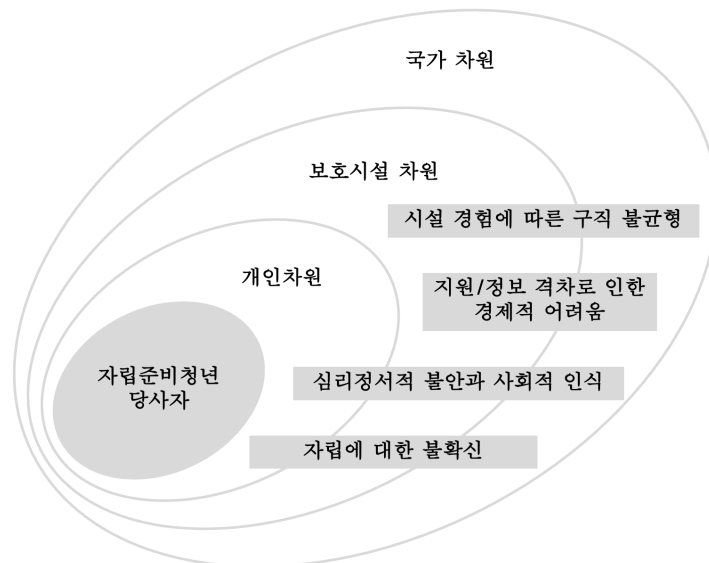
면담 질문:

1.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 a. 성함, 나이, 직업, 퇴소 시기 등
2. 생활하신 양육 시설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a. 시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 b. 시설 생활의 장단점들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 c. 시설에서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어떤 것들에 참여하셨나요?
 - d. 어떤 프로그램들이 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e. 꼭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f.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르게 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 g. 시설에서 가르쳐줬거나/준비해줬으면 좋았겠다 하는 것들이 있나요?
3. 시설에서의 경험/관계
 - a. 선생님들은 어떤 분이셨나요?
 - b. 시설에서의 사람들과 기억에 남는 좋았던 경험/안 좋았던 경험들 중 공유해줄 수 있는 경험이 있나요?
 - c. 후원자/외부인 방문은 많았나요? 그들과 기억나는 추억이 있나요?
 - d. 시설에서 만난 사람들 중 계속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4. 퇴소 준비 절차 (정부 자립지원 정책)
 - a.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립 지원 정책들 중 어떤 지원을 받았거나 아직 받고 계신가요?
 - b. 지원받기 위한 절차는 어땠나요? 누가 지원 과정을 도와줬나요?
 - c. 어떤 지원이 가장 도움이 되었고 어떤 것이 불필요하거나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나요?
 - e. 어떤 지원이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나요?
5. 퇴소 후 경험
 - a. 퇴소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심정은 어떠셨나요?
 - b. 퇴소 후 가장 힘들었던 점들이 무엇이었나요?
 - c. 퇴소 후 첫날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기분이 어떠셨나요?
6. 현재
 - a.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나 생각은 어떤것들인가요?
 - b.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 a. 지금의 진로나 상황이 퇴소 전 꿈꿨던 진로와 차이가 있나요?
 - b. 앞으로 어떤 일/삶을 살고 싶나요?
7. 자립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자립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제 4 장 연구결과

본 연구는 양육 시설 퇴소 아동들의 심층면담을 통해 시설에서의 자립 준비 경험 및 프로그램,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되고 있는 자립 지원 정책들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1차 자유로운 면담을 진행하였을 때,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원 가족에 대한 원망, 사람에 대한 그리움, 자립 후 느끼는 공허함 등의 솔직한 감정을 공유해 주었다. 이러한 담화 뿐만 아니라 시설에서의 경험과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 많이 제시됨으로, 이들의 자립은 시설과 많은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 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시설에서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을 고루 경험하였고, 시설 내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비교적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자립을 하였다.

<모형 3> 핵심주제와 해소 차원



인터뷰 내용을 중심 주제 분석법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8개의 범주와 17개의 의미단위로 분류하였다. 각 영역에 따라 범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4개의 핵심 주제들을 도출하였다 (p.30 표 5 참고). 연구에 참가한 시설 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이 공통적으로 야기하는 핵심 주제들은: (1)지원/정보 격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2)시설 경험에 따른 구직 불균형 (3)심리정서적 불안과 사회적 인식 (4)자립에 대한 불확신 이었다. 모형 3에 보여지는바와 같이 대부분의 도출된 주제들은 단순히 당사자나 시설에서의 해소 차원이 아닌 당사자, 시설, 그리고 사회에서 점진적으로 같이 풀어 나가야하는 다방면의 이슈다.

<표5> 자립준비청년 자립 경험 핵심 주제

시설 퇴소 자립준비청년		
주제	범주	의미단위
지원/정보 격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지역 간 격차	계속되는 현금성 지급의 확대와 불균형
		주거와 구직 기회
	시설 간 격차	정부 자립 지원 정책 정보의 접근성
		시설 내부 자원의 역량
시설 경험에 따른 구직 불균형	시설 내 프로그램	시기 적절한 개입과 동기부여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 및 방식
	시설 내 사람들과의 경험 및 관계	힘들었던 시설 생활, 퇴소 후 연락 끊음
		주 양육자의 중요성
심리정서적 불안과 사회적 인식	시설 밖 사람들과의 경험 및 관계	자립준비청년 교류가 든든함
		사회적 낙인과 편견
		더 이상 간섭받고 싶지 않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원가족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치유되지 않은 상처
자립에 대한 불확신	생리욕구적 자립	경제적으로 홀로서기 가능 (직장)
		안정적인 주거환경
	심리정서적 자립	심리정서적 독립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자아실현 욕구 파악

1. 지원/정보 격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인터뷰 중 연구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과 정보의 격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자신들의 경험뿐 만 아니라 주변 자립준비청년들의 경험을 빗대어 보아도 지역 간의 격차는 물론, 같은 지역 안의 시설 간의 격차도 극명했다. 이러한 격차는 정부의 자립지원과 정보의 접근성에서 가장 크게 드러났으며, 이러한 격차들은 더 많은 분야의 불균형으로 이어졌다.

1) 지역 간 격차

이 연구의 참가자들 중 C와 D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수도권 시설 출신이었는데, 앞서 표3 (p.13)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 간의 자립정착금 지급 금액은 많은 차이가 있다. 자립준비청년들은 퇴소 후 어느 지역에 정착하는지에 따라 해당 지역 자립정착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입소한 시설의 위치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표3과 같은 자립정착금 지급 기준은 그 지역의 주거 및 생활비 수준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이지만 직업이나 학업에 따라 퇴소 후 지역을 옮겨야 하는 청년들의 경우, 새 지역에서 집 보증금으로도 불충분한 경우가 있다. 경기도나 서울특별시와 같은 경우 비싼 집값과 생활비를 고려해 계속 현금성 지급이 확대되고 있어 다른 지역들과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현금성 지급의 불균형 뿐 만 아니라, 주거와 구직 기회 또한 극명한 격차를 보인다. 마찬가지로 수도권의 경우 LH와 같은 정부 지원 주거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고, 일자리의 다양성과 기회도 다르다.

“지원정착금도 상향되고 있잖아요. 지역별로 조금씩 상이하지만... 그 갭의 폭이 큰 곳도 많아요. 예를 들어 강남에 2500만 원 줘요... 지역별로 격차가 커지면 수혜의 갭이 커지잖아요.”

“현금성 제도에 한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정책개편안을 다 읽어보면 사실 그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이만큼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그 제도나 지원 사업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는 점을 주목을 하고 싶어요.”

더불어 지역 간의 정보 격차는 자립에 필요한 경제적, 주거적 차이를 더 심화시킨다. 연구 참가자들은 이미 정부에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경제적, 주거적 지원은 충분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 중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지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정보의 접근성 문제라고 말한다. 어떤 지역의 청년들은 자립준비청년이 본인을 일컫는 단어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섬이나 외곽 지역의 경우, 담당 요원들의 잦은 부서 이동과 자주 개편되는 정책들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이미 충분한 지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 뿐, 현금성 지원은 충분하다고 연구 참가자들은 모두 말한다. 연구 참가자들 중 2명은 LH 주거에 살아 본 경험이 있었는데, 둘 다 자립전담요원은 이것에 대해 잘 몰랐고,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인터넷으로 찾아봐서 지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예산을 확장할거면 다른 쪽에 확장했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드는거죠. 이미 충분해요 현금성 지원 제도는. 사실 몰라서 못 받는 친구들이 많죠. 이미 있는 제도의 효율성과 접근성, 지원체계의 활용도를 높일 고민을 해야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지역에 교육을 하러 다니면 그 아이들한테는 ‘애들아, 너네는 자립이라는 걸 해야해’라고 하면서 개념부터 정의해주고 시작해야해요.”

“단순히 LH에서 집을 빌려줘 이게 아니라 유형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략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퇴소 5년 이후에는 LH를 신규 계약할 수 없어요. 연장은 되지만요.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고, 본인이 대학을 다니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면 사실 부동산을 찾고 다니는데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럴 때 아동권리보장원에 메일을 쓰면 매칭해 주는데, 이것도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주거에 대한 이해도를 키우고 싶을 때 그들만을 위한 상담 센터가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정책은 많은데 실효성 있게 활용하지 못하니까 안타까워요.”

이러한 지역간 정보와 인프라 격차 때문에 이미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놓은 사업들의 혜택을 못 누리는 자립준비청년도 있는 반면, 수도권 청년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의 혜택에 다 지원을 해 또래의 다른 청년들보다도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왜 이렇게 부서 이동이 잦은지, 시설의 담당자들의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

2) 시설 간 격차

시설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민들은 큰 틀로 봤을 때 대체로 비슷했지

만, 시설마다 격차는 극명하게 나타났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어떤 시설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 선생님의 관심과 애정, 지역사회 인프라, 시설의 프로그램 및 시설 내부 자원의 격차는 매우 컸다. 시설의 규모와 환경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들의 겪는 경험은 천차만별이었다.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립 지원 정책들을 알려주는 분들이 시설 자립전담요원들인데 잦은 부서 이동과 정책들도 계속해서 개편되기 때문에 현존하는 정책들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청년들이 많다.

시설의 운영방침과 시설 내의 인프라에 따라서도 크게는 프로그램과 후원부터 작게는 매달 받는 용돈의 금액도 차이가 났다. 정부가 관리하는 시설의 경우 중학생은 일주일에 1,000원, 고등학생은 한 달에 20,000원의 용돈이 제공되지만, 시설에 따라 전담요원들이나 시설 선생님들의 보조로 한 달에 100,000원이 넘는 용돈을 받은 참가자도 있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여자친구랑 방학 때마다 헤어졌어요. 커피 한잔 마시고 데이트 할 돈이 없는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시설 출신이라는 걸 안 밝혔으니 까 그냥 헤어지자고 하는거죠.”

“저는 주어지는 20,000원 이외에 성당에서 후원금 받은거나 수녀님들께서 조금씩 더 주셔서 한 달에 100,000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 20,000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저는 모두가 다 이 정도는 받는 줄 알았어요.”

“...경기도는 지금 2,000만원 자립지원금이 나오는데요, 저는 개인 후원자들이 따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지금 통장에는 제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있을거예요.”

최근 정부에서는 자립정착금을 1,000만원 정도로 권고하고 있기에 지원 금액의 인상이 예상된다. 하지만 용돈이나 다른 현금성 지원이 시설의 역량에 따라 상이하듯, 자립정착금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자립준비청년이 생활했던 시설의 지역에 기준하여 지급한다.

2. 시설 경험에 따른 구직 기회 불균형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들은 대부분 퇴소 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퇴소 후에 누릴 수 있는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주거마련정책, 디딤씨앗통장, 마음상담바우처 등 다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 후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이다. 하지만

당사자 모두가 공통적으로 강조한 점은, 자립은 딱 퇴소 후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점진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퇴소 전, 시설에서부터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모든 참여자들이 말한다. 비자립준비청년에게 가정이 가장 중요한 환경요소인 것처럼,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시설이 가장 중요한 환경요소인데, 개개인의 시설 경험에 따라서 경제적/주거적 자립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지는 구직 기회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1) 시설 내 프로그램

대부분의 시설에는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배우거나 필요한 서류 작성 요령 같은 것도 알려주었다. 공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진로에 대한 고찰이나 탐구는 개개인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 집단의 경우, 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 참가자는 세부적인 컴퓨터 기술을 배웠고, 다른 참가자는 미술을 배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도 후원 여부에 따라, 그리고 참가 인원내 따라 참여할 수 있었다. 한 연구 참여자는 본인의 미술 수업을 상기하며, 생각한 것과 많이 달라서 그만두고 싶었는데, 시설의 프로그램들은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둘 수 없기에 더욱더 프로그램의 참여가 망설여진다고 설명했다. 다른 연구 참가자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이력서와 같은 양식들을 미리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기도 하고, 그 당시를 회상하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어도 강제로 진행되고 비효과적인 교육 방식과 중요성이 간과되어서 귀 기울이기는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프로그램이나 교육에 또다시 집중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말했다.

개개인의 나이나 성향에 따라 배우는 속도도, 자립 속도도 다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자립 의지를 독려해야하는 건데, 나이도, 속도도 다 다른 아이들을 강당에 앉혀놓고 하는 의무교육은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연구 참가자들은 그 당시 경험을 회상하며 주말의 황금 같은 자유시간에 대신 의무교육을 들으니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말한다. 더욱이 시설 종사자나 시설 출신이 아닌 강사들이 하는 강의가 와닿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어린 아이들 일수록 자립이라는게 무엇인지, 결국에 해야하는 것이라는 그 단계에 맞는 설명이 필요한 것이고, 퇴소를 앞 둔 청년에게는 또 다른 방식의, 더 현실적인 조언이나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주말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본인이 관심 없는 주제를 강제로 청강하라고 한다면 그 교육효과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주말에는 필수 교육이 많아요. 도움이 되는 교육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개개인의 특성에 맞출 수 없잖아요. 같은 금융 교육이라고 해도 돈 투자에 관심 있는 친구도 있을거고 적금이나 이렇게 궁금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 강사가 가지고 온 교육만 의무적으로 강당에 앉아서 들어야하니깐 아무리 중요한 교육 잘 안 듣게 되고 그런게 반복인 것 같아요.”

“좋은 프로그램들도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래도 제가 돌아간다고 해도 집중해서 들을 것 같진 않아요. 그때 당시에 은행도 안 가봤는데 금융교육이 와 닿지도 않고, 소방 교육, 약물 오남용 교육 그런 거 담배에 무슨 성분이 있는지 아이들이 주의 깊게 듣기 힘들죠. 개별의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들이 더 있으면 좋겠어요.”

“시설에서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무조건 참여해야 해요.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어도 프로그램이 리코더면, 리코더를 배워야 하는거죠. 자신의 개성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는게 아니라... 저는 그만두고 싶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너 이거 한다고 했잖아. 이거 후원받고 하는 건데 그만두면 안돼.’ 이런 환경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해 더 망설여지고 거부하게 되는거예요.”

하지만 시설의 인프라와 프로그램에 따라서 학생의 진로와 관심을 찾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한 참가자는 시설에서 신생아 때부터 만 18살까지 지내면서 진심으로 본인을 위해주는 선생님들 덕분에 밝고 풍족하게 자랐다고 자부한다. 이 참가자의 경우, 세상에 대한 더 넓은 견해를 키워주기 위해 시설에서 개인 후원자들이 미국으로 2년간 유학을 보내주거나 예술가로서의 꿈을 응원하며 사교육 지원도 아낌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드문 경우이며,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들과 풍족한 인프라에도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은 많다는 점을 강조한다.

“저는 사실 특별한 케이스죠. 적극적이지 않거나 사춘기라서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선생님들도 한없이 다가갈 수 없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저와 같은 시설에서도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는거죠.”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립준비청년들은 개별 상황에 맞추어 아님, 틀에 짜여진 시설의 프로그램에 따라 생활한다. 자립전담요원, 생활

지도원 같은 후보호자 역할을 맡는 선생님들의 수도 아동들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고, 그마저도 자주 교체되기 때문에 이 특수한 집단의 아동들의 마음을 살펴보기도, 각각의 진로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진로교육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한 10가지 직업에 관한 동영상은 한 20분, 25분짜리를 듣는데 그걸 본다고 내가 갑자기 막 꿈이 생기고 그러긴 어렵잖아요...”

“시설에서 선생님들이 어렸을 때 부터 공무원을 해야한다, 안정적인 교사를 해야한다 이러한 말씀들이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아요. 근데 졸업하고 보니 저는 이 진로와 너무 안 맞는거예요.”

“진로를 꿈꿔볼 겨를도 없었고 생각도 못했는데 정부에서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뭘 하고 싶은지 알고, 뭘 좋아하는 지도 모르는데, 좋은 일자리도 빨리 그만두는 친구들이 많아요. 결국 시설 선배들의 진로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환경은 자연스럽게 구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본인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직업을 하면 좋을 지에 대해 깊은 고찰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른 경제적 자립이 강요되는 이들에게, 주변 어른들의 관심과 진로 가이드는 필수이다. 하지만 이들은 비자립준비청년들에 비해 일찍이 경제적 자립이 강요되어 대학에 진학하여 진로를 탐방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2) 시설 내 사람들과의 경험 및 관계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요소가 시설인 만큼, 연구 참여자들 모두 시설에서의 경험은 퇴소 후 자립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단순히 시설의 환경이나 적응문제 뿐만 아니라 시설 안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경험 및 관계가 그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손꼽았다. 시설 내에서의 선후배들 뿐 만 아니라 주 양육자 역할을 하는 선생님들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육시설에서 만나는 어른들 중에 생활지도원이 이 청년들에게는 후보호자이자 부모의 역할을 대신한다. 연구 참여자들 중 대부분은 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을 말했다. 한 참가자는 선생님들이 주는 따뜻한 관심을

받으며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다고 말했고, 선후배들과의 공동 고민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든든한 관계를 맺은 참여자도 있었다. 반면에 시설 선후배들과 갈등과 불화가 있었던 경험도, 선생님들의 부적절한 태도나 연민에 대한 반감으로 퇴소 후 연락을 끊어버린 참가자도 3명이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 시설 사람들로 부터 받은 상처가 더해져서 퇴소 한 참가자부터 시설 사람들로 부터 동기부여를 받고 위로를 받은 참가자들까지 시설 간 격차는 분명했다.

생활지도원은 시설에서 아동들의 전반적인 생활을 관리하는데, 이전에는 한명이 10명이 넘는 아이들을 담당했지만, 현재는 생활지도원의 수를 늘려 한명이 담당하는 아동의 수가 평균 7명으로 줄었다. 생활지도원의 근로시간을 보장해 주기 위해 3명이 교대근무로 아이들을 관리한다. 생활지도원들의 근무환경은 나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주보호자의 역할을 3명에서 나눠서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더 큰 혼란을 초래된다고 한다. 더불어 다양한 이유 때문에 생활지도원이 계속 바뀌는 경험과 그에 따른 상실감이나 상처는 참가자들이 지속적으로 손꼽는 어려움 중 하나였다. 모든 참가자들은 아동양육시설 출신이었고, 한 참가자를 제외한 모두가 최소한 10번 이상 생활지도원, 즉 주 양육자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양육자 한 명에서 13명을 봐야하는데 못 보는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벗어나는 친구들, 애정이나 이런 부분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선생님들은, 양육자들은 행정 업무도 해야 해요. 생활공간을 청소하는 업무도 해야 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해야해요... 저는 어렸을 때는 유치원, 중, 고등학생들이 같이 생활을 해서 그 당시에는 나이에 맞는 케어를 제대로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다가 이모, 삼촌이라고 부르게 되고.. 담당자가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냥 정을 붙일 수가 없죠... 제가 15년 정도 생활했는데, 저 같은 경우 바뀐 양육자가 한 10명이 넘어요.”

“생활지도원 선생님이요? 셀 수 없이 바뀌었죠. 한 20번? 일 년에 두 번씩 바뀔 때도 있었어요. 저에 대해 조금 아는 선생님이 없어지니까 진로상담이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나눌 어른이 없는거죠.”

“...엄마라고 부르던 사람이 맨날 바뀌니까 새로운 사람한테 또 내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점점 마음 닫게 되고 그냥 얘기 안 하게 돼요. 또 바뀌겠지 생각이 들고...아이들도 힘들고 계속 바뀌면, 그분들도 힘들고요.”

“정부 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어른들에게 여러 번 상처받아서 더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또 기대하고 상처받을까봐.”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이 다른 청년들에 비해 더 빨리 요구되는 만큼, 자립준비청년들의 미래 설계와 진로 탐구는 시설 안에서 꾸준히 시간을 내어 고민하고 쌓아야 한다. 같이 고민해주는 어른의 부재와 실패하면 돌아갈 가족이 품이 없는 이들에게는 일찍이 시설에서의 관심과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3. 심리정서적 불안과 사회적 인식

자립준비청년들은 원가족의 부재로 비자립준비청년들과는 비교적 다른 자립 과정을 밟게 된다. 자립이라는 개념은 한 시점에 바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지만 이들은 자립을 비교적 이른 나이에, 기댈 어른 없이 시작하게 된다. 시기적절한 개입의 부재로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있는 이들은 원 가족으로부터 한번, 퇴소 후 시설과 정부로부터 다시 한 번 독립하여 홀로서기를 시작한다. 이들의 내재되어 있는 심리정서적 불안은 시설 밖 사람들과의 경험 및 관계로부터 더 심화되거나 완화되는 경우가 많다.

1) 시설 밖 사람들과의 경험 및 관계

시설 퇴소 아동들은 시설에서의 경험들을 기반하지만 사회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로 인한 영향도 많이 받았다. 더 많은 또래 퇴소 아동들을 만나면서 각자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러한 지지체계가 자신감 형성이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야기했다. 또한 시설 독립 후 처음에는 자유를 느꼈지만 기댈 어른이나 관계들의 부재로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과 공허함이 커졌다고 말했다. 퇴소 후 만나게 되는 사례관리전담요원도 바뀌는 일은 잦고, 이들은 이러한 변화에 익숙하다고 말한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받은 통제와 통금 같은 수많은 룰 들이 있어서 퇴소를 기다리는 청년들도 많고, 이제 퇴소 시기를 5년 연장할 수 있지만 굳이 그러지 않는 친구들이 많다고 한다. 연구 참가자들 중 퇴소 시기를 연장하여 대학 진학 후에도 시설에서 지낸 참가자는 단 한명 뿐이었다. 나머지 5명은 만 18살이 지나고 즉시 퇴소했다.

“전담 요원 1인당 관리하는 아이들이 한 80명 정도예요. 최근에 확대되어서 180명이 된건데, 전국에 있는 요원들은 180명, 보호 종료 5년 이내에 아동들은 12,000명...이분들의 역할은 보호 종료 5년 이내의 아동들의 사례관리

인데 의무적으로 하는거죠. 엑셀에 넣어야하니까, 일년에 한번정도 전화오셔서 근황 여쭙보시죠. 무슨일이 생기면 그분들한테 연락은 안해요. 해도 못만 날걸요?”

“자립준비청년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어서 그나마 의지가 되는 것 같아요.”

“시설 퇴소 후 전담 요원한테 오는 연락은 그다지 반갑지 않아요. 드디어 통제에 벗어난건데 또 통제하려는 느낌 때문이에요... 저는 16년동안 외박도 한번도 못해봤거든요... 관리와 통제의 연속이에요.”

“사실 도움을 주고 후원자 역할이건 뭐 정부 역할이건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너네는 이게 필요할 거라고 감히 추측을 해서 호의를 베푼다고 하면, 사실 필요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보면 되게 폭력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일들도 반복되면 상처가 되거든요.”

“특히나 정치인들이 와서 뭐 주면서 싫다고 해도 뭐 들고 찍고, 얼굴 그대로 내보내고. 한창 예민할 나이잖아요.”

연구 참여자들은 일생동안 겪게 되는 낙인과 사회 진입 후 다시 겪게 되는 사회적 편견은 그들의 자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우 사회적 낙인이나 배제와 같은 사회에 대한 부정적 편견 때문에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하는데, 스스로의 역량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쌓고 회복해야 비로소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적절치 못한 연민이나 후원의 수혜를 강요받거나 하는 것들은 이들에게 상처로 기억되었다. 타인에게 지지를 받더라도, 스스로 그것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연구 참가자들은 비교적 ‘성공적’인 자립을 한 자립준비청년들이었다. 공부를 잘하거나 좋은 직장을 얻거나 본인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승화시켜 다른 시설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했다. 하지만 6명 모두 사회적 낙인은 항상 본인들을 따라다닌다고 말했다. 퇴소 후 “성공적인 자립”을 이룬 경우 따라오는 낙인과, “성공적이지 못한 자립”을 하면 당연히 “시설청년”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고 말한다.

“...나 자체로 봐졌으면 좋겠는거죠. 나의 개성이나 나라는 사람의 특성을 보는게 아니라, 나의 배경으로 판단을 하니까.”

“친구들한테도 난 대학교 갔어, 어디 취업했어, 이러면 “보육원에 살았던 것치고 굉장히 잘 살았다. 대견하네.”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애초에 기대하는게 보통의 청년과 다른 것 같아요. 불쌍하고 뭔가 우리가 얻어낸 건 일반 청년들이 얻어낸 것보다 더 값지다고 평가하는?...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녀요.”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크고 작은 사회의 평가와 낙인은 본인을 남들보다 더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하며 본인들의 역량을 펼치는데 제한을 둔다고 말한다. 성공적인 자립엔 심리정서적 안정이 필수조건인데, 안정적인 정서를 형성하기에 어려운 이 집단에게 사회적 편견은 그러한 고민을 심화시킬 뿐이다. 매슬로우의 3단계는 어느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열망,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가족을 이루고 싶은 애정과 소속의 욕구인데, 이러한 시설에서의 경험, 자립 후의 경험들이 이들을 자기발전을 이루는 마지막 자아실현의 욕구의 단계에 이르기 어렵게 만든다. 더불어 뉴스바움의 10대 핵심 역량 중 감정, 그리고 관계의 영역의 부재를 만들어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는 실질적인 자유를 제공해주지 못하며 자립준비청년의 삶의 질과 역량 확장을 이르게 하기엔 부족함을 나타낸다.

2)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연구 참가자 6명 모두 놀랍게도 인터뷰 질문에 없지만 본인들의 기분이나 심리상태를 말하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에 대해 언급하였다. 연구 참가자들 중에는 원 가족과 지내다가 시설에 입소한 경우도, 기억하는 순간부터 시설이었던 경우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퇴소 후 공허함을 느낀다고 말한다.

“사실 전달까지도 실감이 안 나는데, 퇴소하는 날 짐을 정리하고 혼자 시설 밖으로 나갔을 때 실감이 딱 났어요... 조용했어요. 애들이 북적북적 떠드는 것도 없고 고요하더라고요. 시설에 있을 때는 나만의 조용한 보금자리가 생긴다는 생각에 기대됐는데 막상 나오니까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그리고 외로움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퇴소 당일에는 그냥 좀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았고 하루 이틀 지나니까 자유가 좋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항상 뭔지 모를 공허함이 덮쳐요. 이게 가족이 없기 때문에 오

는 공허함인지, 다른 혼자 사는 사람들이 다 느끼는 공허함인지 모르겠는데, 공허해요. 그래서 취미라도 하고 친구들 만나고 되도록 혼자 있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정상적인” 가정의 형태에서 자라지 않았고, 그러한 환경이 어떤 것 인지 경험조차 못해 본 참가자들이 대부분이다. 참가자들은 시설 생활에 만족하며 시설 선생님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느끼지만, 가끔씩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낀다고 야기한다. 오랫동안 꿍꿍 숨겨놓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원 가족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때문인지, 독립한 청년들이 모두 느끼는 그저 조용한 원룸이 풍기는 느낌에서 오는 평범하고 혼한 외로움인지 형용하긴 어렵다고 말한다.

4. 자립에 대한 불확신

자립은 모두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보통 자립이라는 개념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종속되지 않고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하여 이루고 싶은 지위에 이르는 것”이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립을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 ‘다른 사람에게 손 빌리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능력’,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 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자립의 경지에 올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적, 주거적, 심리정서적 독립은 필수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책들은 이들의 생리적 (경제적, 주거적) 자립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한 자립을 만 18살, 보통의 비 자립 준비 청년보다도 이른 나이에 이루길 염원하는 것 같다고 당사자들은 말한다. 막상 자립 준비가 덜 된 아이들은 18살이 되기까지 자립준비청년이 본인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도 말이다. 연구 참여자들 중 2명은 어느 정도 자립에 이르렀다 생각한다고 했고, 나머지는 아직 자립을 못했다고 생각했다.

1) 생리욕구적 자립

자립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하여 이루고 싶은 지위에 이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이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생리욕구적 자립과 심리정서적 자립으로 나눌 수 있다. 생리욕구적 자립이란 보편적으로 경제적으로 홀로서기가 가능해지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참가자들 중 자립했다고 생각한 두 명은 생리욕구적 자립의 기준으로 ‘안정적인 직장’과 ‘안전한 주거환경’ 등에 이르렀기에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이들 역시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정부의 현금성, 주거적 지원이 끝나면 또 다시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을거라는 걱정이 있다고 한다.

연구 참가자들에 의하면 개인 후원자들과 선생님들의 사비로 더 받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모두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중학생 때까지는 일주일에 1,000원, 고등학교 때는 한달에 20,000원 용돈을 선생님이 현금으로 인출해서 주셨다고 한다. 퇴소 전까지 은행에 가본적도 없는 연구 참가자들은 퇴소와 동시에 경제적 자립을 강요받아 통장에 셀 수도 없는 큰 금액의 자립정착금과 디딤씨앗통장 등으로 본인도 모르게 마련된 돈이 있는 경우가 있고, 경제 관념이 확실하게 성립해있지 않은 이들에게 많은 위험요소들이 있다고 한다. 아직 자립을 못했다고 답한 4명은 직장이 있고 돈을 벌더라도 정확한 경제관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립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더욱이 여러 가지의 이유로 대학진학을 포기하거나 본인이 어떤 직업을 원하는지 확실히 모르는 연구 참가자들의 경우, 직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오는 불안감이 있다고 말한다.

“은행에 가본 적도 없는 친구들이예요. 아껴 쓰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있겠지 만 어떻게 해본 적도 없으니까, 돈을 안 써봤으니까 어떻게 잘 쓰는지 모르는 거예요. 평생 이거 하지마라 저거 하지마라, 저기 가지 말라고 하다가 갑자기 그 나이가 됐다고 시설에서 퇴소 해버리니까 그냥 이제까지 안 됐던 술 마신 다거나 늦게까지 논다거나, 백화점가서 비싼걸 산다거나 먹고 산다거나 그렇게 흥청망청 정착금을 쓰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18살이 막 된 친구한테 평생 연락 한번 없던 부모가 연락 와서 ‘나 엄만데, 내가 지금 사고가 나서 몇 백만원이 필요하다’ 이런식으로, 아니면 퇴소 선배가 와서 핸드폰 싸게 개통해주겠다...근데 애들이 분별력도 없고 선배니까, 그래도 부모라고 하니까, 하면서 당해요. 돈 개념 없는 애들이 큰 돈이 생긴거 아니까 주변에서 그 돈을 노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

“저는 고등학교때부터 인턴을 해서 남들보다 훨씬 빨리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제가 모은 돈이 많을까요? 저는 일단 경제 관념이 없었어요...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알려주잖아요. 몇 퍼센트 떼고 저축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근데 저는 그렇게 없었으니까...”

연구 참여자들은 “자립준비청년”에 붙은 자립이라는 단어가 자립을 일찍부

터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말했다. 아무리 직장이 있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올바르게 소비하거나 저금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힘이 부족하면 생리욕구적 자립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한다.

2) 심리정서적 자립

연구 참가자들 중에 자립에 이르지 못했다고 답한 4명은 생리욕구적 자립보다도 심리정서적 자립에 초점을 맞추었다. 단순히 ‘얼마를 버는가’, ‘작장의 유무’, ‘보급자리의 유무’와 같은 생리욕구적 요소들이 자립의 기준이 되기보단 그들의 주관적인 인식이 크게 그들의 자립도와 연관이 있었다. 사람마다 자립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도 하고 자립을 했다는 분명한 체크리스트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참가자 개개인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심리정서적인 자립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홀로서는 힘’, ‘자신의 자아실현 욕구 파악’, ‘스스로 선택하는 힘’ 등으로 정의했다. 어렸을 때부터 해소되지 못한 원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나 원망 등의 감정이나 그에 따른 상처들로 새로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기가 어렵다고 하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정서적인 문제는 퇴소 후가 아닌 시설에서부터의 개입과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정부 지원 사업 중에 마음 건강 사업이라고 있었는데 진짜 0.몇프로 밖에 이용을 안했대요. 사실상 당사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지원했다” 이렇게 “정책을 확장했다”라고 하는데...이 아이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은 어릴 때부터 주 양육자, 그리고 부모와 떨어지면서 치유되지 않은 마음이 큰데, 그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 바로 적응해야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중요한 본질들을 두고 십 몇 년이 지나서 24살, 25살에 갑자기 심리 상담을 받으라고 하면 누가 받겠어요.”

해소되지 못한 상처와 사람에 대한 불신 등이 많은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그로 인해 사람에게 크게 의존을 하거나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극단적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 참가자는 본인의 자립에 대한 압박과 불안한 심리 때문에 이성교제와 교제를 할 때 그 이성에게 많이 의존하고 집착하게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 중 5명은 성공적인 자립과 관련해서 결혼을 언급했는데 이들 모두 자립이란 개념에는 본인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몇 명의 참가자들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야 본인들의 공허함이나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정상적인” 가정의 형

태의 생활을 잘 누리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개념에 대한 환상과 함께 막연한 두려움도 크다고 말했다. “엄마,” “아빠”로서 어떻게 행동해야하며 어떤 것이 좋은 배우자의 형태인지 잘 모르겠어 두렵다는 참가자도 있었던 반면 본인이 부모님의 부재를 크게 느끼며 살아왔기 때문에 아이의 입장에서 어떤 걸 원하는지 잘 알아서 본인의 아이에게 그런 것 들을 충족시켜주고 싶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제가 생각하는 자립은 죽을때까지 계속 고민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결혼할 때도 내가 결혼을 잘 책임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될거고, 자녀의 양육, 나중에 집 살때도, 모든걸 다 고민해야하는데 그런걸 어떻게 5년 이내에 해 내요.”

“자립을 뭔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처럼 항상 말하는데, 자립은 일상이잖아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자립 의지를 독려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한테 돈 주고 주거 지원제도 알려주고 이런 것보다도 본인이 정서적으로 ‘자립을 잘 해야겠다’, ‘나 잘 살고 싶어’라는 의지가 반영돼야 되는데...”

연구 참가자들이 말한 심리정서적으로의 자립은 평생동안 풀어야하는 숙제 같은 것이었으며, ‘본인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힘’, ‘본인이 어떤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능력’과 같은 주관적인 요소들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매슬로우의 하위 4단계들을 모두 이루면 비로소 자기발전을 이루는 마지막 자아실현의 욕구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역시 그런데에 반해 비 자립 준비 청년들과 비교하면 하위 4단계들의 충족도 한없이 부족하다. 더불어 누스바움의 10대 핵심 역량들이 다 충족되어야 비로소 누스바움이 주장하는 “자유로운 사회” 즉 사회의 불평등과 소외를 줄이며 개개인의 삶의 질과 역량을 보장해주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마련되었을 때, 자립준비청년들 역시 비로소 성공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는 환경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제 5 장 논의 및 결론

제 1절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시설에서 퇴소한 후,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일차적으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자립지원정책들에 대한 생각을 수혜자의 입장에서 알아보았다. 또한 시설에서 제공되는 자립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과 의견을 질문함으로써 당사자의 경험의 근거한 자립지원서비스에 대한 견해를 bottom-up 방식으로 질적 탐구하고자 하였고, 시설에서의 프로그램이 이들의 자립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설보호 후 퇴소한 6명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고,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크게 (1)지원/정보 격차로 인한 경제적 불균형 (2)시설 경험에 따른 구직 어려움 (3)심리정서적 불안과 사회적 인식 (4)자립에 대한 불확신라는 4가지 핵심 주제를 도출하였다.

원 가족과 자란 아이들에게는 가족 환경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가장 중요한 환경 요소는 보호시설이다. 그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정서, 진로 지원 프로그램들로 공교육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들을, 또 부모의 부재로 생기는 공백을 보강해야 한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자립 관련 교육의 비효율성을 야기하였다. 주말마다 강제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교육들은 여전히 아동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 개개인의 니즈에 맞춰져 있는 교육이 아니고, 시기적절하지 못한 내용과 교육방식으로 자립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에 그쳤다. 자립준비청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은 개성도 다르고 궁금한 것이 다르지만, 이 청년들을 수십 명 강당에 모아놓고 의무적으로 듣게 하는 진로나 경제 교육은, 오히려 이 친구들의 흥미를 떨어뜨렸으며, 사실 그 프로그램들 중 기억에 남는 교육들은 없다고 공통적으로 말한다. 차라리 개개인에 맞춘 특기 활동이나 체험학습의 확대가 더 긍정적일 것이라며 제안했다.

시설에서의 프로그램이 중요한 만큼 이들이 시설에서 관계를 맺는 어른들과의 경험도 이들의 자립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주보호자 역할을 맡게 되는 생활지도원의 잦은 교체로 부모의 부재로 받은 상처나 공허함을 누구와도 공유하기 어려워지는 실상이다. 엄마나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고 모든 걸 다 공유했던 선생님이 매년 바뀌고 연락도 안 되다보니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선생님들이 애초에 관리해야 하는 아동의 수도 너무 많기

때문에 시기별로 알맞은 케어를 제공하기엔 거의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시설 퇴소 후, 사례전담요원도 빈번하게 바뀌고, 이들이 사회에서의 부모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들 또한 담당하는 아이들의 수가 많게는 100명이 되다보니, 정작 필요할 때 연락이 닿기 힘들고, 이들 또한 의지하기 어렵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 친구들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자립을 너무 일찍 강요하는 것 같다고 느낀다고 말한다. 자립이라는 건 모두가 평생 풀어야하는 숙제지만 이들은 만 18살이 되면 자립을 강요받는 느낌이 든다고 야기한다. 그리고 성공하면 성공한대로, 아니면 그런대로 사회에서 자신들을 따라다니는 낙인 때문에 자신이 아닌, 배경으로 평가를 받는 기분이 든다고 말한다. 또한 정부나 정책 제공자는 당사자들의 니즈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이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서비스들이나 지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무리 정부가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예산을 늘리더라도 당사자들이 필요 없다고 느끼거나 수혜를 받지 못하면, 다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공통적으로 만 18살 퇴소 시점에 모든 정책들과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시설에 있을 때부터 아이들 개개인을 더 살펴보고 그들의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심리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고찰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제 2절 논의

1. 이론적 함의

시설 경험과 프로그램, 그리고 현재 정부의 자립 지원 정책에 대하여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들의 견해를 물은 본 연구는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와 누스바움의 역량접근법 이론적 프레임으로 바라보았다. 현재 정책들은 매슬로우의 1, 2단계, 즉 생리적 욕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들의 여러 니즈 중 매슬로우의 3, 4단계 욕구 충족, 즉 심리적 안정의 니즈로 초점을 옮길 필요성이 야기되었다. 또한 누스바움의 역량접근법에 근거하여 핵심 역량들 중 당장 시급한 신체건강, 감정, 그리고 관계의 요인들이 보장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비슷하게 신체건강은 어느정도 보장되고 있지만, 나머지 감정과 관계의 심리정서적 요인들의 강화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결과에 따라 시설에서의 경험은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와 정서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그 중 긍정적인 관계를 쌓고 경험을 기반한 청년들은 비교적 성공적인 자립을 했다는 점에서 매슬로우와 누스바움이 강조하는 결핍욕구들이 충

족되어야지만 비로소 정서적으로 안정된 자아실현의 단계에 진입 하여 비로소 성공적인 자립에 이를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다는 논리에 부합하며 취약계층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확장시켰다. 하지만 개개인의 충족 조건과 속도는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연구 하나로서는 경험적으로 검증되기가 어렵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 전에 전 니즈들이 얼마만큼 충족되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고 또한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여러 단계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이론의 한계점도 제시한다.

2. 정책적(실천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현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자립지원정책들과 시설에서의 경험과 프로그램을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의 입장으로 알아보았으며,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개개인에 의지와 니즈에 맞춘 모니터링과 프로그램의 유연성이 핵심이다.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국가에서 개별 상담가를 지정해주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주는데 (이봉주 외, 2017) 이러한 시기적절한 개입과 개인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들의 자립에 시설에서의 경험의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퇴소 전에 충분한 진로 탐색 기회가 필요하다. 어른의 부재로, 주 양육자의 잦은 교체로 혼란을 겪는 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보살핌은 매우 중요하다.

생리욕구적인 자립에 나아가 심리정서적인 자립에 도달 할 수 있는 환경은 당사자 본인들이 어떠한 삶을 개척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의지가 있는가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의지를 성립시키고 자립이라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시설 퇴소 후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시설 안에서부터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현존하는 시설 프로그램들은 퇴소 준비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데, 진로는 이들의 성공적인 생리적 욕구의 자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청년들은 흔히 알고 있거나 시설에서 전해들은 직업을 선택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의 의지에 따라 미리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황정하, 2017). 현재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많은 인원을 두고 한가지의 주제에 대해 다루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진다. 개개인의 니즈에 맞게 더 세분화 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개별 상담이나 퇴소 선배의 멘토링으로 성공 후일담을 듣고 교류하는 형식의 방법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도출된 결과에서 심리정서적 불안이 공통된 주제 중 하나였는데, 시설 안,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 상처를 받는 청년들이 많았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들의 심리적 안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교육과 자격이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도 관심이 필요하

다. 당사자들이 가장 깊이 유대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 즉 주 양육자인 생활 지도사 같은 경우, 너무 많이 교체가 되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또다시 혼란과 상처를 주는 일이 많다. 이러한 시설 종사달의 업무 실태 현황을 파악해 부족한 인력을 늘리거나 재배치하는 등의 노력이 기반 되어야 자립준비청년들의 더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선 정책제공사 입장에서 추측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 보다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끊임없이 묻고 반영해야 하며, 보호 기간 동안만이 아닌, 퇴소 후에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제 3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는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어 일반화에 시키기 어려운 점이다. 자립준비청년은 사회취약계층이라 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지만 선정된 연구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가지는 편향성, 예를 들어 자신감이 높거나 성공적인 사례들이 대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성공적”인 자립, 즉 본인들의 경험들을 잘 승화시키고 이러한 담화들을 건강하게 나눌 준비가 된 청년들만 참여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청년들의 경우 공부를 잘하거나 친구들과의 유대관계도 원만하여 시설 생활에 잘 적응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못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기는 어려웠다.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내용은 매우 의미하지만, “성공적”인 자립을 하지 못하고 숨겨지는 다른 자립준비청년의 비율이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40%까지 되며 이 집단의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집단의 전체를 대변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목표 표집과 스노우볼링 표집으로 선정된 연구 참가자들로만 구성되어 지리적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참여자들만 인터뷰 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추후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무기명 서베이 방식과 심층면접을 혼합한 연구방법을 제시해본다. 또한 연구 결과에서도 언급되었듯 지리적 차이가 극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서울에 기반하고 있지 않은 자립준비청년들로 대상자 수를 확대 할 필요성도 있다. 더 나아가 아직 시설 퇴소 전인 아이들을 follow-up 하는 사례연구들로 추적 연구를 함으로서 이러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정부나 시설의 시기적절한 개입과 방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준비과정이나 자립 후에 겪는 경험에 대해 당사자의 시각으로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자립준비 청년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생리적인 욕구 해결 (경제적, 주거적 지원)에 초점을 많이 맞추었다. 또한, 퇴소 후 이들의 전반적인 생활을 알아보는 담화연구는 있었지만, 당사자의 시각에서 지원 정책 수혜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구는 제한되어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시설 퇴소 후 자립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하여 당사자의 경험에 근거해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시설에서의 경험과 프로그램에 대한 견해를 탐색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상향식 (bottom-up) 연구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선 정책제공자 입장에서 추측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 보다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끊임없이 묻고 반영해야 하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과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의 렌즈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바라보았다. 매슬로우 이론의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 단계에 이르러 자립준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그리고 누스바움이 주장하는 최소한의 핵심 역량들이 잘 보장되어 자립준비청년들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유를 보장받으며 당장의 불평등, 차별과 소외를 줄이고 이들의 역량을 확장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 그리고 환경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철희, 윤희미 (2001). 시설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3-50
- 강현아, 신혜령, 박은미 (2009). 시설 퇴소청소년의 성인전환 단계에 따른 자립 및 사회적응 현황. 한국아동복지학(30), 41-69
- 강현주, 김지은, 김진숙, 정익중, 임혜리. (2019).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3), 0-0.
- 김미영, 최정숙.(2022).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자의 자립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적기업 (주)브라더스키피참여자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3(1),3-35.
- 김민정.(2008).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심리적 적응. 한국 가족 복지학, 13(4),145-159.
- 김민정.(2009).위탁부모 양육행동이 위탁보호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14(3),97-1.
- 김외선.(2020).보호시설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정신분석적 연구에 관한 토론문.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학술발표대회 프로시딩,50-51.
- 김소영, 이신혜 (2020). 시설에서의 자립 준비: 시설퇴소아동 당사자의 자립 서비스 수혜 경험을 중심으로.청소년학연구,27(11), 1-36.
- 김상용.(2017).위탁아동의 친권과 후견.중앙법학,19(4),213-250.
- 김지선, 이민주, 정익중.(2018).시설보호종료 후 자립을 유예한 대학생의 자립 준비 경험. 한국아동복지학,(62),93-129.
- 김지연, 윤철경.(2021).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지원 현안과 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1-102.
- 권지성, 정선욱 (2009). 아동양육시설 퇴소생의 퇴소 후 생활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3), 229-253
- 권지성, peter,pecora, 홍지연. (2019). 가정위탁 보호종료 성인의 생활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미국 워싱턴 주를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24(2), 195-220.
- 노충래, 김미영, 박은미, 강현아, 신혜령.(2008).발달단계 및 위탁형태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의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정신건강과 사회복지, 28(),238-264.
- 라형규 (2019). 보호종료 청소년은 보호의 마침이 아닌 시작, 새로운 시작입니다.

- 월간 복지동향(245), 16-22
- 문성호, 박지원 (2018). 시설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정책 분석. 청소년학연구, 25(12), 257-279
- 문정희 (2016). 아동양육시설 자립지원 전담요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미.(2017).공동생활가정과 위탁가정 주양육자의 양육태도가보호청소년의 우울·불안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15(1),197-208.
- 박혜지, 이정화 (2020).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소년들의 자립과정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31(1), 65-80.
- 보건복지부. 가정 위탁 국내 입양 소년 소녀 가정 현황.(2021). 보건복지부. 2021. 『2021 보건복지통계연보』
-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2021. 『2020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 아름다운재단. 2021"열여덟어른"시리즈. (2021)
- 안희란, 이용교. (2020). 시설퇴소 청년들의 자립지원교육에 대한 요구. 청소년 복지연구, 22(2), 61-84.
- 양은별, 김지혜, 정익중, 이정희 (2017). 진학이 아닌 취업을 선택한 시설 퇴소 청소년의 경험. 청소년복지연구,19(4), 133-158.
- 윤명숙, 박신애."퇴소를 앞 둔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재분리 준비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한국사회복지학66.4(2014):133-155.
- 원지영(2008). "아동복지시스템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 현황과 자립 지원 정책에 대한 고찰. "청소년학연구15.7(2008):79-107.
- 이슬기, 양성은 (2019). 공동생활가정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28(5), 449-461.
- 이준호, 박순아, 송소원.(2020).보호시설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분석적 연구.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학술발표대회 프로시딩,(),37-49.
- 이태연, 최은숙, 이세정. "아동 양육 시설 퇴소 후 청소년들의 생활경험과 자립 간의 관계에 대한 사례 연구." 청소년학 연구 26.4 (2019): 293 - 322.
- 이혜연, 서정아, 조홍식, 정익중, 김귀랑 (2007).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28
- 장정은, 전종설.(2019).가정위탁의 시작에서 종결까지: - 일반가정위탁모의 장/단기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 가족복지학, (65), 67-102.

- 장혜진, 최은희, 윤혜미.(2014).가정의 보호유형에 따른 보호제공자와의 유대 관계가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29(),25-50.
- 정선욱 (2002). 시설보호 청소년의 원가족 관계 경험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14), 145-168
- 정익중, 김주현. "가정 위탁 종결 청소년의 자립경험." *한국가족복지학*. 64(2019):131-163.
- 정정호, 좌현숙, 김지선. (2021). 보호대상아동의 심리/정서적 자립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아동복지연구소 보고서*, 2021(13), 1-246.
- 제철웅. (2020).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에 관한 아동복지법의문제점과 개선 방안. *법학논총*, 37(1), 339-371.
- 송이은, 손정연, 곽태희. "양육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 방안 연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2019):1-174.
- 심재휘, 이명희, 김경근.(2018). "누가 켄거루족이 되는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격차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4(4), 29-53.
- 최영 (2007).위탁아동이 인지한 사회적지지와 심리사회 적응. *한국아동복지학*,(24),61-90.
- 홍예영, 김유숙 (2020). 아동양육시설 퇴소를 앞둔 청소년의 심리적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청소년학연구*, 27(2), 275-304
- 황수연 (2018). 아동양육시설 퇴소성인들의 가족생활 어려움과 극복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70(1), 33-61
- 황종인, 김장희. (2021).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청소년의 자립경험에 대한현상학적 연구. *교류분석상담연구*, 11(1), 47-67.
- Bulat,L. 2010. "A longitudinal study of depressiveness in children in public car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9: 412-423.
- Creswell, J. W., & Poth, C. N. (2018). Chapter 4. In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essay, SAGE Publication Inc.
- Denby,R. W. 2012. "Parental incarceration and kinship care: Caregiver experiences, child well-being, and permanency intentions. " *Social Work in Public Health* 27: 104-128.
- Farineau, H. M., Wojciak, A. S. & McWey, L. M. 2013. "You matter to me: Important relationships and self-esteem of

- adolescents in foster care.” *Child & Family Social Work* 18: 129-138.
- Fergeus, J., Humphreys, C., Harvey, C., & Herrman, H. (2019). The needs of carers: Applying a hierarchy of needs to a foster and kinship care context. *Adoption & Fostering*, 43(2), 155-168.
- Howard, A. (2021). Mental Health Among Children in Foster Care. *Mental health and foster care*.
- Kang, H. Chung, I, Chun, J., Nho, C. R., & Woo, S. 2014. “The outcomes of foster care in South Korea ten years after its foundation: A Comparison with institutional car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9: 135-143.
- Maslow, A. H. (1943). A dynamic theory of human motivation. *Understanding Human Motivation*, 26-47.
- Nussbaum, Martha C. *Creating Capabilities: The Human Development Approach*.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 Pecora, P. J., Jensen, P. S., Romanelli, L. H., Jackson, L. J., & Ortiz, A. (2009). Mental health services for children placed in foster care: an overview of current challenges. *Child welfare*, 88(1), 5-26.
- Steenbakkers, A., Van Der Steen, S., & Grietens, H. (2018). The Needs of Foster Children and How to Satisfy Them: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21(1), 1-12.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1). Adoption and foster care analysis and reporting system (AFCARS) report: Preliminary FY 2014 estimates as of July 2012.
- Waite, R., and Shewokis, P. A., 2011. "Childhood trauma and adult self-reported depression", *The ABNF journal: official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Black Nursing Faculty in Higher Education, Inc.* 23(1). 8-13.
- Walker, I. D. (2017). AB 12, California fostering connections to success act: A policy analysis (Order No. 10262618).

A Qualitative Study on the Difficulties Transitional Age Youth Aging out of Foster Care Face in the Transition Process

Sooahn Ko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difficulties of the Transitional Age Youth (TAY) population in South Korea throughout their transition into adulthood as they age out of foster care. As one's environment plays a crucial role in the development process, this research aimed to unveil TAY's experience in the foster care system as a key factor in their transition process. While the importance of TAY is often undermined, this is a significant population not only because they are disenfranchised and are at risk population, but their successful transition into adulthood is crucial to them becoming valuable, contributing members of society. In order to uncover the true experiences the transitional age youth go through during their journey of becoming self-sufficient adults, six transitional age youth were interviewed in this qualitative study. Results showed that the common themes were: (1) financial difficulty due to the disparity of information and support (2) dissimilar employment opportunities varying by the experiences at different foster care facilities (3) psychological anxiety and social perception (4) uncertainty about the aging out process and becoming self-reliant adults.

This study examined the aging out experiences of TAY through the lens of Maslow's hierarchy of needs theory and Nussbaum's capabilities approach. According to the interviews, the experiences in the facilities had a great impact on TAY's psychological and emotional health, and thus reconfirmed Maslow and Nussbaum's theory that the basic needs have to be settled in order for people to reach the steps of self-actualization and realize their maximum capabilities. The results showed that while the foster care experiences are key factors into

successful integration into society, the experiences greatly varied from facility to facility. The inefficiency of programs and the difficulty of meeting individually targeted needs was the main concern. Also, the financial status and resources at the facilities were unevenly distributed, leading to a great gap in the experiences. In some facilities, the main care givers changed almost every year, causing major confusions to the youth whom relied on them for emotional support. Moreover, the interviewees shared their concerns regarding social stigma that shadows.

This research aims to disseminate the problems and difficulties TAY face in the aging out process by unveiling this issue from a bottom-up examination. While it is challenging to completely meet all the needs of TAY, this study hopes to contribute to creating a society that enables this disenfranchised population to realize their capabilities and successfully integrate into society as valuable, self-sufficient adults just like their peers.

Keywords: Transitional Age Youth (TAY), foster care, transition, social stigma, self-reliance, self-sufficient